



인천공항 가치점프 5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

# 관계가 자라는 시간



# CONTENTS

## 축사

관계의 활주로에서 함께 그려온 5년,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 Prologue

프로로그: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일러두기: 인천공항 가치점프란?

## Chapter 1.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 Context

왜 '연결'일까?  
인천공항, 연결의 활주로가 되다

### Story

진명이의 토요일 "혼자였던 하루가, 함께 자라는 하루로"  
선우쌤의 토요일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다"

### Value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 Insight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결이 필요하다

## Chapter 2. 신뢰가 쌓이는 시간

### Context

끊임없이 배우며 진화한 5년

### Story

기연쌤의 책임감 "해보려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다시 돌아온 성준쌤의 "1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진솔이와 선생님이 쌓은 "관계의 두께"  
손준화 선생님의 기대 "다음 해를 상상하게 만드는 협력"

### Value

약속을 지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각자의 색깔, 각자의 속도로 함께 자라는 과정

### Insight

관계 속에서 나를 믿게 된다

## Chapter 3. 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

### Story

지기쌤이 돌아왔다 "받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다현쌤의 기준 "좋은 일 아니라, 놓치고 싶은 않은 관계"  
윤진호 멘토의 시선 "다음 10년을 여는 단서"

### Value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는 관계

### Insight

가치점프 5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 Epilogue

에필로그: 우리는 서로의 미래가 된다

## Appendix

숫자로 본 가치점프, 5년의 데이터

# 축사

## 관계의 활주로에서 함께 그려온 5년, 더 높은 비상을 꿈꾸며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연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사가 지향하는 연결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고, 그 연결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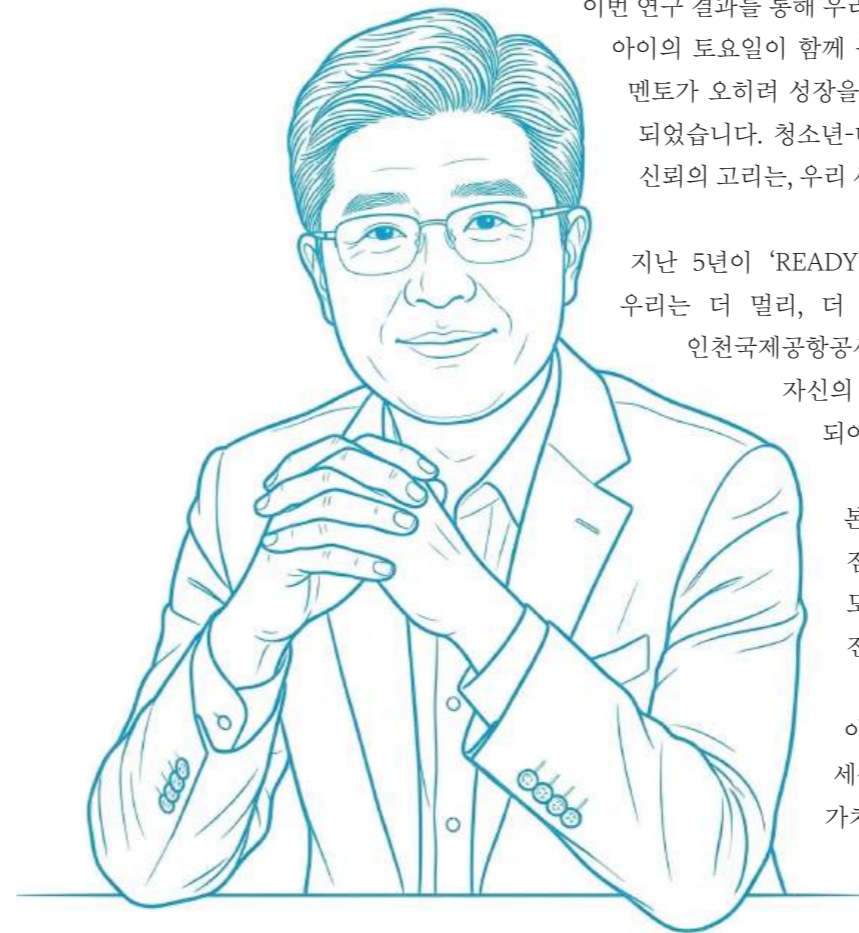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된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성과 보고서 「관계가 자라는 시간」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기록이자, 이주배경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따뜻한 증거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연결’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혼자였던 아이의 토요일이 함께 공부하고 꿈꾸는 시간으로 바뀌고, 가르치려 갔던 대학생 멘토가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며, 사회인 멘토는 ‘좋은 어른’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대학생-사회인으로 이어지는 ‘삼각 멘토링’이라는 견고한 신뢰의 고리는, 우리 사회의 고립된 섬들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5년이 ‘READY’와 ‘JUMP’를 위한 준비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는 ‘FLY’의 단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성장의 활주로’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진저티프로젝트 연구진과 사단법인 점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 참여해 주신 모든 장학생과 임직원 멘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한 권의 기록이 우리 사회에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가치 있는 성장이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본부장 **신가균**



# Prologue

## 관계가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누군가의 곁에 한 사람이 서는 일. 그것은 때로 제도보다, 예산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인천·경기 지역의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삼각 멘토링입니다. 2020년 첫 발을 댄 이래 5기까지 이어져 왔으며, 매년 100명의 대학생이 400여 명의 청소년과 만나고, 30명의 공사 임직원이 대학생의 멘토로 함께합니다.

가치점프가 지난 5년간 증명해온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의 효과가 아닙니다. 관계가 사람을 키운다는 진실, 그리고 그 관계를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서는 관계 기반의 사회공헌 모델로서, 가치점프는 공기업 ESG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 5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멘토—세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성장에 관여하고,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선순환의 기록입니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닿는 관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는 놀라운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 멘티였던 청소년이 장학생이 되어 돌아오고, 장학생이었던 대학생이 사회인 멘토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섭니다. 가치점프가 5년에 걸쳐 만들어온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환하는 관계의 생태계입니다.

이 순환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삼각 협력이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세대를 향해 관계의 활주로를 펼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의 중심에서 운영과 연결을 촉진해온 사단법인 점프, 그리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장학생을 지원하는 학습센터.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점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인천 지역에는 1만 5천명이 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약 95%에 이주배경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원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가치점프는 바로 그 물음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점프가 5년간 지켜온 원칙은 분명합니다. ‘결핍을 채우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관계를 통한 건강한 성장’.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이 가치점프의 출발점이자,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중심 가치입니다.

## 왜 숫자가 아닌 이야기인가

이 책은 일반적인 임팩트 리포트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는 대신, 변화를 이야기로 전하는 ‘가치 책(Value Book)’입니다.

물론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오래 귀 기울인 것은 숫자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멘티였던 이가 장학생이 되어 같은 공간에 다시 섰을 때의 떨림, 장학생이었던 이가 사회인 멘토가 되어 다시 돌아온 이유, 대학 시절 교육봉사를 했던 사회인 멘토가 장학생들에게 취업 준비보다 삶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게 된 까닭.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우리는 가치점프에 참여한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멘토, 학습센터 담당자, 운영사무국 매니저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관찰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단계 나아간 해석을 통해 가치점프가 만들어온 진짜 변화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인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청소년-대학생-사회인 멘토’가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상호작용입니다. 1년에 가까운 긴 호흡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가치점프가 바라는 진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의 관점 전환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을 ‘결핍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보



편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 이 책을 읽는 네 개의 시선

이 책은 가치점프 5년의 이야기를 네 가지 시선으로 읽습니다.

### [Context] 왜, 여기에서 시작되었는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한가. 인천의 지역적 특징과 과제, 그리고 가치점프가 ‘관계’와 ‘연결’에 주목하게 된 문제의식을 짚습니다.

### [Story] 현장에서 일어난 진짜 변화 이야기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멘토, 학습센터, 운영사무국-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 [Value]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가치점프의 가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해석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과 기다려준다는 것, 관계 속에서 나를 믿게 되는 과정, 저마다의 색깔로 함께 자라는 과정, 그리고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는 선순환의 구조.

### [Insight] 가치점프 5년이 만들어낸 변화의 지도

가치점프가 만들어낸 나선형 성장의 구조와 임팩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관계 중심의 선순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조망합니다.

##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 책은 단순히 5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기록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다음 변화의 씨앗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Value Book’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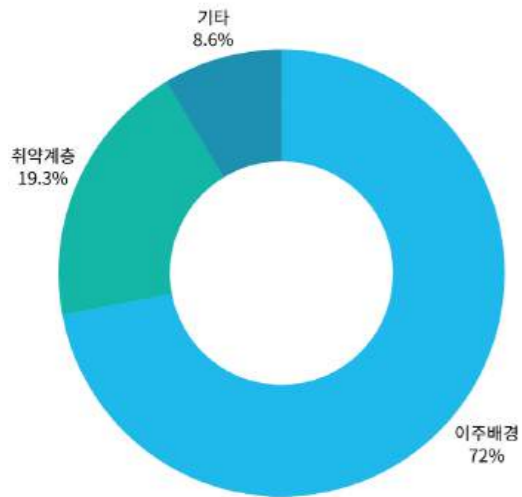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치점프가 만들어온 관계의 힘을 느끼고, 그 관계가 지역사회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관계, 그 관계가 커져서 쌓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자라나는 과정. 이것이 가치점프 5년이 만들어온 이야기이며, 이 책이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 일러두기

## 인천공항 가치점프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점프가 주관하는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청소년(멘티)-장학생(대학생 교육봉사자)-사회인 멘토단으로 이어지는 교육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삼각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1기 (2020년)	2기 (2021년)	3기 (2023년)	4기 (2024년)	5기 (2025년)	누적
청소년	379	406	372	384	396	1,937
장학생	100	94	100	100	100	494
학습센터	19	26	23	25	27	120
사회인 멘토	26	60	22	29	30	167



참여 청소년 특성 비율  
이주배경: 834명 (72%) / 취약계층 224명 (19%) / 기타 100명 (9%)

## 가치점프 사업 구조 (삼각 멘토링, 삼각 협력)

### 1) 삼각 멘토링

가치점프는 청소년(멘티), 장학생(대학생 교육봉사자), 사회인 멘토단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연결되는 삼각 멘토링의 구조를 가진다. 이 모델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교육 나눔이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지향한다.

**청소년:** 인천·경기 지역의 이주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건강한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각 학습센터의 상황에 맞게 일대일 혹은 일대다의 구조로 장학생들과 연결되어 학습 멘토링을 참여하기도 하고, 진로체험이나 가치점프 올림픽등의 일정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간다.

**장학생(대학생 교육봉사자):** 장학생은 '장학생+선생님'의 합성어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후원하는 장학생이면서 동시에 학습센터에 파견되어 청소년을 학습 지도하는 대학생 교육봉사자다. 거주 지역이나 학교 소재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학습센터를 지정받아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거나, 선배로서 청소년들의 진로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한다.

**사회인 멘토단:** 장학생의 성장과 진로/취업/삶의 리듬을 돕는 멘토로서 참여한다. 주최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멘토단으로 구성되어 장학생들에게 커리어·워크·라이프 멘토링을 제공하며 다음세대인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삶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 2) 삼각 협력 구조

가치점프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하나로 고정된 사업이 아니라, 주최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주관기관(사단법인 점프)-학습센터(현장 교육기관)가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며 장기적 동반자로 함께하는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누구나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온 공항의 가치를 지역사회로 확장해, 미래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치점프를 함께했다.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멘토단 운영을 지원하며 삼각 멘토링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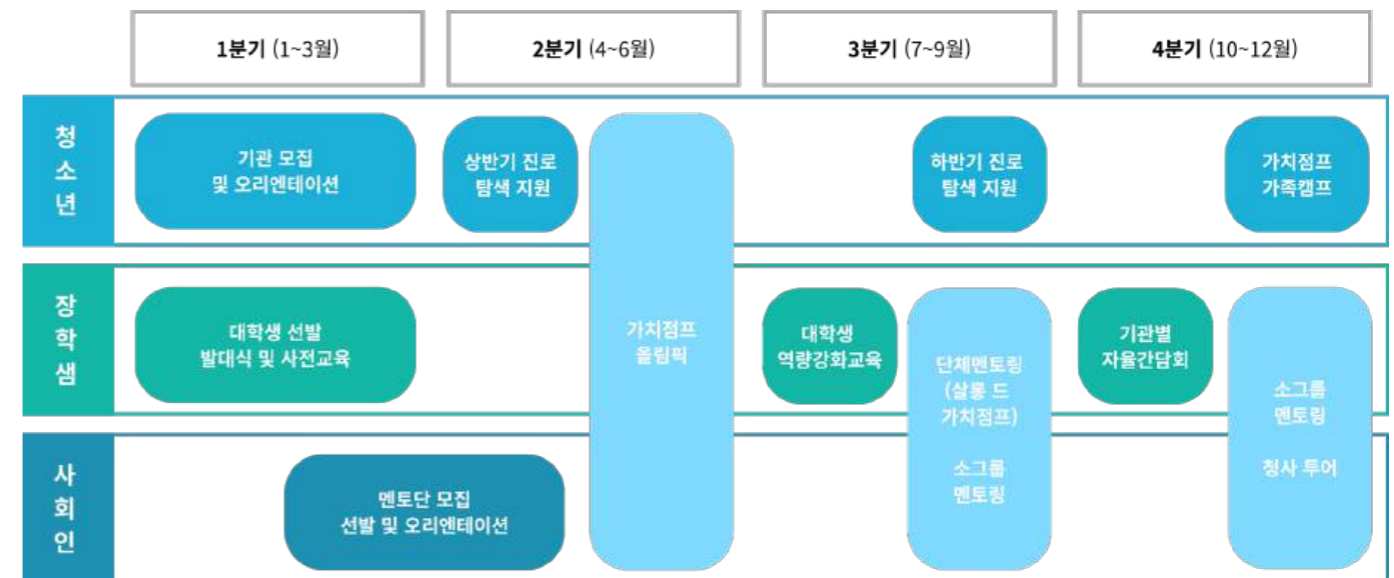
**사단법인 점프:**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10개월의 흐름을 붙잡아 주는 역할을 맡았다. 장학생을 모집·교육·배치하는 단계부터, 매주 활동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후속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장학생과 센터가 원활하게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학습센터:** 청소년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아이들의 출결과 생활 리듬, 안전을 고려해 활동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공유해 학습·정서 지원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율했다.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점을 전달하며, 매년 가치점프가 현장에 더 맞게 바뀔 수 있도록 협력했다.

## 가치점프와 함께하는 한 해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10개월의 멘토링 기간을 포함하여, 대상 모집과 선발 그리고 연말의 수료식까지 한 해를 가득 채우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과 장학생, 사회인 멘토단이 각각의 일정을 따라가면서도 주체별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연결되는 주요한 프로그램들이 각 분기마다 준비되어 끊임없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1년의 시간을 함께 한다.

## 가치점프와 함께하는 1년



## Chapter 1.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 Context

왜 '연결'일까?

인천공항, 연결의 활주로가 되다

### Story

진명이의 토요일 "혼자였던 하루가, 함께 자라는 하루로"

선우쌤의 토요일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다"

### Value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 Insight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결이 필요하다



## Context

### 왜 '연결'일까?

####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천

한국 사회의 구성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전국의 이주배경 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2024년 11월 기준), 1년 만에 13만 4천 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 증가율의 50배에 달하는 속도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비해, 이주배경 학생은 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재학 이주배경 학생은 20만2208명으로 10년 만에 2.5배 늘어났다.(2025년 교육기본통계).

이 변화가 가장 빠르게,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인천이다. 인천 지역 이주배경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연수구, 서구에 전체의 56.7%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수구 인천문남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64%가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밀집도가 높다. 인천 다문화교육 포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라는 입국 관문, 수도권이라는 입지, 산업단지를 갖춘 다양한 일자리가 이주민 유입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우고,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는 환경이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이자, 이웃이자, 시민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 조각난 지원,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

교육청은 학습을, 가족센터는 한국어와 돌봄을, 복지시설은 상담을, 이주민단체는 생활 정보를—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영역과 분야에 따라 분절적이다. 기관 간 중복과 누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지역별로 인력과 예산의 편차도 크다. 한 아이를 온전히 지원하려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 아이를 조각조각 나눠서 다루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구(2025)는 이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짚는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학습 부진이나 언어

문제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신체·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을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복지관·다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주배경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인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기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형식적 통합을 넘어 관계 중심의 실질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 지적은, 가치점프가 처음부터 '관계'를 핵심에 놓은 이유와 맞닿아 있다.

#### 공백이 공백을 부른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는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은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어에 어려움이 있으면 학습이 늦어진다. 국어, 사회, 과학을 배우려면 한국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언어를 배우는 동안 수업 진도는 계속 나간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기존 또래 관계의 상실, 가정 내 변화에 대한 적응, 모국과 다른 교육 체계—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겹쳐 찾아오기도 한다. 이 격차를 배우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감당하기 어렵다. 방과후 학교나 민간 단체의 공부방이 대안이 되지만,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학습 공백이 누적되면 생기는 것은 단순한 성적 하락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에 대한 공백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 미결정률은 92.9%에 달했다. 중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22.3%), 초·고등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44.6%)라고 답했다. 부모들도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에 관한 정보 부족”(24.7%)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정보가 없다는 건 인터넷 검색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변에 물어볼 어른이 없다는 뜻이고, 가족 안에서도 연결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적성을 모른다는 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

다. 이것은 아이의 결핍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주배경 가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태어났더라도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비슷한 공백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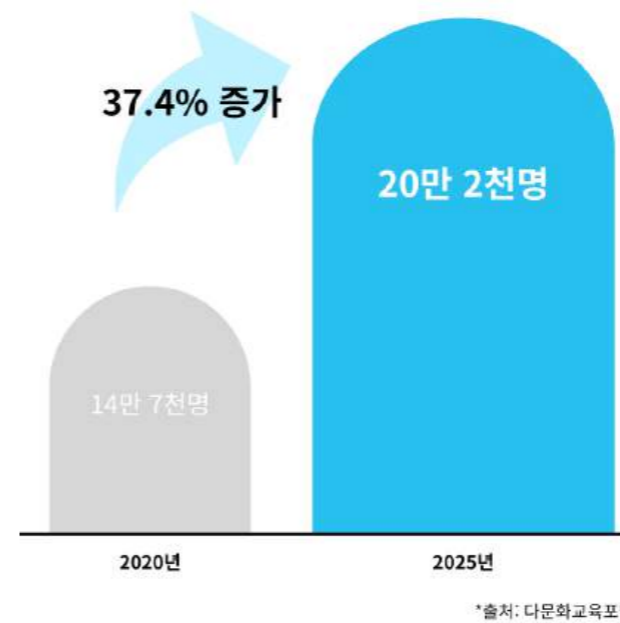
####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국어도 늘고, 친구도 사귀고, 적응하겠지.

하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녀들 중 62.1%는 이미 한국에서 수년을 보낸 초등학생이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는 아이들이다. 그런데도 92.9%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학업 스트레스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다.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관계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간은, 적응이 아니라 고립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친구를 못 사귀다가, 점차 “어차피 나는 다르니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처음에는 “직업 정보가 부족해서” 진로를 못 정하다가, 점차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무력감이 내면화된다.

이 아이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안타깝다. 자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은 계속 다르다고 말한다. 이 간극을 혼자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고립되어 간다.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관계와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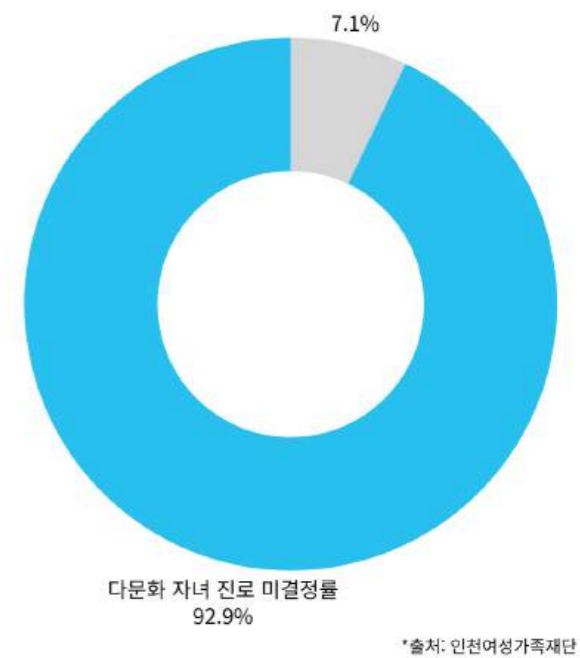
#### 그래서, 연결

학습 공백, 진로 미결정, 관계의 부재. 이것은 특정 배경의 청소년만의 과제가 아니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마주하는 공통된 현실이다. 가치점프가 만나는 청소년들도 그렇다. 매해 100명의 장학생이 400여 명의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 비율은 3~5기 평균 72%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가치점프가 바라보는 것은 특정 범주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이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다. 조각난 지원을 엮어내는 연결, 학습 공백을 함께 메워가는 연결, 곁에서 고민을 나눠주는 연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닌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만, “어차피 나는”이라는 학습된 무력감은 “나도 할 수 있어”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가치점프는 바로 그 관계와 연결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이주배경(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 미결정률

## Context

# 인천공항, 관계의 활주로가 되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연결”

### 활주로는 대신 날아주지 않는다

공항의 활주로는 누군가를 대신해 날아주지 않는다. 활주로에 올라선 이들이 이륙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고,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 그 연결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 앞서 살펴본 인천의 현실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고자 한 역할이 바로 활주로였다. 청소년과 장학생, 그리고 임직원 멘토가 서로에게 닿을 수 있도록 관계가 일어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 혼자 견뎌내던 하루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을 고민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 가치점프 2~4기 운영을 담당했던 조민재 대리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교육 분야의 사회공헌을 함께 운영할 역량을 갖춘 파트너들이 여럿 있었지만, ESG경영팀은 그중에서도 ‘관계를 통한 성장’을 방향으로 삼은 사단법인 점프와 손을 잡았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배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핵심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5기 운영을 맡은 김혜진 대리의 설명은 이 선택의 맥락을 더 넓게 보여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공헌의 방향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축은 업(業) 연계다. 공항이라는 본업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것이다. 교통약자 권익 증진, 항공산업 동반성장 같은 과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가치점프의 맥락에서 보면, 인천공항이 매일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사회공헌으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항이 물리적으로 세계를 잇듯, 가치점프는 세대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관계로 잇는다.

두 번째 축은 지역사회다.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양성, 건강한 공동체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이 해당한다. 가치점프가 전국 단위 사업이 아닌 인천·경기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청소년, 대학생, 임직원이 만나고, 그 관계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세 번째 축은 글로벌·다문화다. 인천공항이 가진 국제적 네트워크와 다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치점프는 이 축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김혜진 대리는 사회공헌 키워드 중 가장 약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글로벌·다문화 영역이었기에, 가치점프가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중요한 변화였다고 짚었다. 특히 가치점프는 삼각 멘토링이라는 관계 구조를 중심에 두면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이나 다문화캠프 같은 활동으로 경험의 폭을 넓혀왔다. 학습센터 안의 관계가 공항이라는 공간, 캠프라는 장면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다문화라는 테마가 형식이 아닌 체감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이 말해주는 것은, 가치점프가 단순히 하나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역할이 구체화되는 접점이라는 것이다. 공항의 본질을 살린 연결, 인천이라는 거점에 뿌리내린 관계,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실천적 응답. 가치점프는 이 세 방향이 만나는 자리에서 5년을 걸어왔다.

### 체감해야 지속된다

활주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다양한 관계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접점을 설계하고, 그 접점이 지속되도록 운영의 중심을 ‘체감’에 두는 방식이다.

조민재 대리는 2기(2022년) 당시를 돌아보며, 코로나에서 막 회복되는 시기라 대학생들이 학습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는 구조 외에는 청소년과 임직원 사이의 교류가 적었다고 했다. 그래서 3기, 4기를 거치며 임직원이 삼각 멘토링을 “체감하고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고 말한다. 그 고민의 결과로 점프와 함께 ‘가치점프 올림픽’이나 ‘진로 박람회’ 같은 장면들을 시도했다.

학습센터 안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질 때,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두 담당자 모두, 청소년이 센터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선생님이 아닌 친한 언니·오빠처럼 느끼고, 하루 종일 뛰어놀며 소통하는 경험이 오래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동이라고 보았다.

이런 장면은 멘토로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조민재 대리는 사업을 지속하고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고,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쌓일 때, 그 인식이 조직 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임직원이 ‘역할을 가진 참여자’가 되는 사업

가치점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은 사업 초반과 후반에 잠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혜진 대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 30개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은 가치점프가 유일하다”고 말한다. 다른 봉사 형태의 사회공헌에도 임직원이 참여하지만 수동적이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가치점프는 임직원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재능기부처럼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민재 대리 역시 가치점프의 차별점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느끼며, 쌍방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움을 나누는 사회공헌”이라는 점을 꼽았다. 멘토 선발에도 공을 들였다. 김혜진 대리는 임직원 멘토를 ‘공사의 대표 얼굴’로 보고, 선발 과정을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장학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면 젊은 연차의 직원이 많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모집 때 젊은 직원 대상으로 메일링을 한 번 더 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연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연결을 혼자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김혜진 대리는 글로벌·다문화 영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네트워크”라고 말하며, 점프가 가진 지역 센터 네트워크를 “빌리는” 구조라고 표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원과 점프의 현장 네트워크가 만나, 연결이 실제로 일어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사 ESG 경영팀이 지향하는 것은, 점프와 지역 기관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서로의 맥락과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본다. 플로로그에서 언급한 공항이 활주로를 펼치고, 점프가 관계를 연결하고, 학습센터가 현장을 지탱하는 구조의 삼각 협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비행기가 아니라 활주로로 남다

가치점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 일은 청소년을 대신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공항이 해온 일을, 공항답게 확장한 것에 가깝다. 사람이 오가고, 서로를 만나고, 새로운 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

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감과 역할, 안전과 신뢰의 조건을 설계하는 곳.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고립에서 연결로 넘어가는 첫 장에서, 비행기가 아니라 활주로로 서 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 연결이, 누군가에게는 혼자자 아니게 되는 첫 이륙이 되도록 공항은 5년간 그 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다.

# Story

## 진명이의 토요일 “혼자였던 하루가, 함께 자라는 하루로”

### 진명이의 토요일이 달라졌다

진명이 가족이 한국에 온 건 작년 초였다. 아버지가 F6 (결혼이민) 비자로 가족을 초청했고, 엄마와 세 아들이 베트남을 떠나 한국 땅을 밟았다. 낯선 동네, 낯선 학교, 낯선 언어. 진명이에겐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엄마 친구가 한마디를 건넸다. “가족센터에 한번 가봐. 거기서 한국어 가르쳐줘.” 그 한마디가 진명이의 토요일을 바꿨다.

진명이는 그렇게 센터를 찾았다.

처음엔 그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였다. 학교에서는 그림으로만 겨우 마음을 전하고, 문법을 하나씩 익히며 천천히 언어를 쌓아가던 시기. 말이 통하지 않는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나면, 토요일 아침 4시간 수업이 부담스러울 법도 했다. 하지만 진명이는 셔틀버스를 타고 30~40분 걸리는 센터로 하루도 빠짐없이 갔다.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게 기대가 돼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배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

###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

센터의 토요일은 2시간 한국어, 2시간 학습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바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진명이는 수학을 좋아했다. “쉬워요”라고 수줍게 웃을 정도로.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언어를 넘어 문화와 역사까지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우쌤의 존재가 특별했다. 선우쌤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진명과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설명해주고, 진명이 수준에 맞춰 수학 문제를 직접 골라서 준비해 오는 사람이었다.

“처음 수학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진명이가 선우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 건, 공부를 잘 가르쳐서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존재였다.

### 혼자가 아니게 되는 시간

4시간 수업이 꼭 진지하기만 한 건 아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진명이에겐 쉬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보드게임과 체스로 채워졌다. 진명이는 2년 동안 체스를 하며 실력을 쌓아왔고, 선우쌤과 함께 체스 두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혼자 두던 체스를 누군가와 함께 둘 수 있다는 것.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규칙 안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체스판 위에서 진명이는 “베트남에서 온 아이”가 아니라, 상대와 전략을 겨루는 한 명의 플레이어였다.

센터에는 진명이처럼 중도입국한 아이들이 여럿 있었다. 우즈베크에서 온 인수는 진명이보다 더 늦게 한국에 와서 처음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런 인수와 지금은 장난도 치고 까불며 지낸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아이들은 스스로 찾아냈다.

### 작은 호기심을 소중히 받아주는 사람

바다로 둘러싸인 ‘내륙의 섬’ 강화군에서, 이주배경 아이들이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그래서 멘토들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 평일에는 강화고등학교 선배 6명이, 주말에는 선우쌤 같은 가치점프 장학생들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멘토들과 공부 이야기만 나눈 것이 아니었다. 관심사, 고민,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는 꺼내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진명이에겐 선우쌤은 “가까운 어른” 같은 존재였다. 한국어와 수학뿐 아니라, 진명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경진대회 준비를 함께하고, 과학적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진명이의 작은 호기심들을 소중히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 “어려운 거면 도와줄 거예요”

“선우쌤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진명이는 주저 없이 답했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건 단순히 언어 실력만을 뜻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친구들과 더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림으로만 소통하던 아이가 이제는 수학이 쉽다고 말하고, 과학적 질문을 던지고, 호날두와 비니시우스를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내년에 선우쌤 같은 대학생 멘토들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어진 질문에는 조금 더 솔직해졌다.

“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먼 미래를 그렸다.

“대학생 되면 멘토 하러 올 거예요?”

“네.”

“왜요?”

“새로운 애들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도와주고 싶냐는 물음에, 진명이는 간단하지만 단단하게 답했다.

“어려운 거면 도와줄 거예요.”

1년 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센터를 찾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다고 말한다. 진명이에겐 토요일 4시간은 더 이상 혼자 보내는 긴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 안에서 진명이는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가까운 어른”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약속을 품게 되었다.

## Story

# 선우쌤의 토요일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다”

### 편도 세 시간, 강화도로 가는 길

처음 강화군가족센터로 향하던 날, 선우쌤(NGUYEN MINH TRIET)은 집에서 센터까지 편도로 거의 세 시간을 달렸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에게 한국의 지리는 여전히 낯설었고, 강화도는 더욱 먼 곳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아이들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아줄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설렘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게 시작된 발걸음이 어느새 10개월이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러 간 자리였지만, 돌아보면 선우쌤 자신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며 낯선 언어와 환경 앞에서 망설이고, 실수하고, 다시 용기를 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 속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

진명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선우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설명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해받는 경험’이라는 것을. 언어가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그래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것. 선우쌤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그 확신을, 이제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선우쌤도 자신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수학 문제를 끝냈으며 수줍게 웃던 얼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눈빛,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주던 순간들. 강화도 아이들 덕분에 선우쌤 역시 성장할 수 있었다.

### 완벽하지 않아서 더 가까운 어른

선우쌤은 완벽한 어른이 아니었다. 한국어가 서툴렀고, 때로는 길을 헤맸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까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넘어선 경험이 있는 선배였으니까.

부족한 점도 많았고, 늘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매 순간 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진명이에게 선우쌤은 “가까운 어른” 같은 존재였다. 한국어와 수학뿐 아니라, 과학경진대회 준비를 함께하고, 과학적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없이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선우쌤은 진명이의 작은 호기심들을 소중히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 ‘선생님’이라는 이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던 순간. 그 호칭 하나에 책임감과 설렘,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함께 고민하고 웃어준 동료 장학사들,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준 가치점프 운영사무국. 선우쌤의 토요일은 혼자 만든 시간이 아니었다.

진명이는 “대학생 되면 멘토 하러 올 거예요”라고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센터를 찾았던 아이가,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다고 말한다. 선우쌤은 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건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건네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다

세 시간을 달려 강화도로 향하던 그 길에서, 선우쌤은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었다. 10개월 후 같은 길을 돌아올 때, 그는 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곁에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망설이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다. 선우쌤에게 아이들과 보낸 시간은 누군가를 가르쳤다가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했던 기억으로 남았다.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선우쌤의 토요일이었다.

# Value

##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 가치점프의 가치 ① — 관계, 그리고 연결

가치점프가 5년간 지켜온 핵심 가치는 '관계 중심의 구조'와 '연결'이다.

#### 관계

가치점프의 삼각 멘토링은 단순히 세 사람을 만나게 하는 형식이 아니다. 맥락은 분명하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다음 세대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계가 가능한 조건을 설계하고 조정해온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장면을 만들고, 점프가 현장을 연결하고, 학습센터가 매주의 만남을 지탱한다. 이 삼각의 협력이 관계를 우연이 아닌 구조로 만들었다.

#### 연결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분절된 지원을 엮어내는 연결이다. 가치점프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동등한 시민'이라는 시선 위에서, 한 번의 만남이 아닌 계속되는 관계를 통해 그 연결을 만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이어질 때, 눈에 보이는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처음 붙잡았던 질문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만남이 의미를 갖게 할 것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점프가 함께 붙잡았던 건 바로 이 질문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발점은 인천이라는 지역이었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이 많은 인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지원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구체화해갈수록,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보다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핵심이 되었다. 그 흐름 속에서 공항은 점프의 삼각 멘토링을 주목했고, 점프는 이 맥락 안에서 삼각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함께 달리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래서 가치점프의 관계는 '좋은 일의 결과'가 아니다. 처음부터 관계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세우고 조정해온 과정의 결과다.

### 맥락은 분명하되, 낙인은 되지 않게

가치점프의 관계 구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상의 맥락이 분명하되 그 맥락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점프의 입장에서 가치점프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맥락을 전면엔 둔 첫 사례였다. 하지만 목표는 그 청소년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인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관계의 구조를 설계하기 이전에, 그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깊이 고민한 결과다.

### 시간이 쌓여야 관계가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만남의 방식이다. 가치점프에서 관계의 핵심은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는 방식에 있다.

청소년과 대학생 장학생이 매주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시간을 겹쳐간다.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공부 바깥으로 확장된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 고민을 꺼내놓는 방식, 서로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방식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

단발성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연결의 감각을 만들 수 없다. 이 관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이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변화다.

### 떠나고 모이고 연결되는 곳에서

그리고 가치점프에는 공항이 관계의 '조건'을 함께 만든다는 특별함이 있다. 공항이라는 공간은 본래 사람들이 떠나고, 모이고, 연결되는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도착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일어나는 플랫폼. 가치점프에서 공항이 한 일은 그 플랫폼의 기능을 지역사회 안으로 확장한 것에 가깝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만남이 실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장면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센터 안에서만 반복되는 만남은 반경이 좁아지기 쉽다. 그래서 공항은 청소년이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다른 경로 경험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었다. 임직원들 역시 그 장면을 통해 '이 관계가 왜 필요한지'를 직접 체감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체감이 쌓일 때 조직 안에서 이 관계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였다. 청소년에게는 경험의 확장이 되고, 임직원에게는 참여의 이유가 되는 방식. 만남이 '같이 있는 시간'을 넘어 '서로에게 남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항은 이 만남을 '잠깐 나타나는 후원'으로 두지도 않았다. 임직원 멘토는 공항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선발 기준을 갖고 접근했고, 참여 역시 일회성 봉사와 다른 방식의 역할로 자리 잡았다. 공항이 가진 자원이 점프의 현장 네트워크와 만날 때, 서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다. 공항 단독으로 만들기 어려운 지역의 현장 접점은 점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열리고, 점프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확장된 장면들은 공항의 자원과 공간을 통해 가능해진다. 누가 누구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조건이 합쳐질 때만 작동하는 구조다.

### 보이지 않는 연결이 관계를 지탱한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 남으려면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지역의 학습센터는 이 관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바닥이다.

센터가 대학생을 학원 강사처럼만 활용하려 한다면, 관계 중심의 만남은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센터의 운영 방식과 철학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매주의 만남이 다음 주로 넘어갈 때 생기는 틈도 그냥 방치되지 않았다. 활동을 기록하고, 이슈를 확인하고, 관계의 흐름을 점검하는 방식이 그 사이를 메웠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이어질 때, 눈에 보이는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

### 질문을 끝까지 붙잡은 5년

가치점프의 차별점은 어떤 형식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5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의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떤 맥락에서 그 만남이 의미를 갖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인천이라는 지역,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라는 맥락, 그리고 청소년-대학생-사회인이 서로의 삶에 남을 수 있는 장면들을 만나며 구체화되었다.

관계는 우연 위에서 자라지 않았다. 어떤 배경을 가졌든 다음 세대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조건 위에서 자랐다. 가치점프는 그렇게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었다.

## Insight

# 그래서, 우리에게서 연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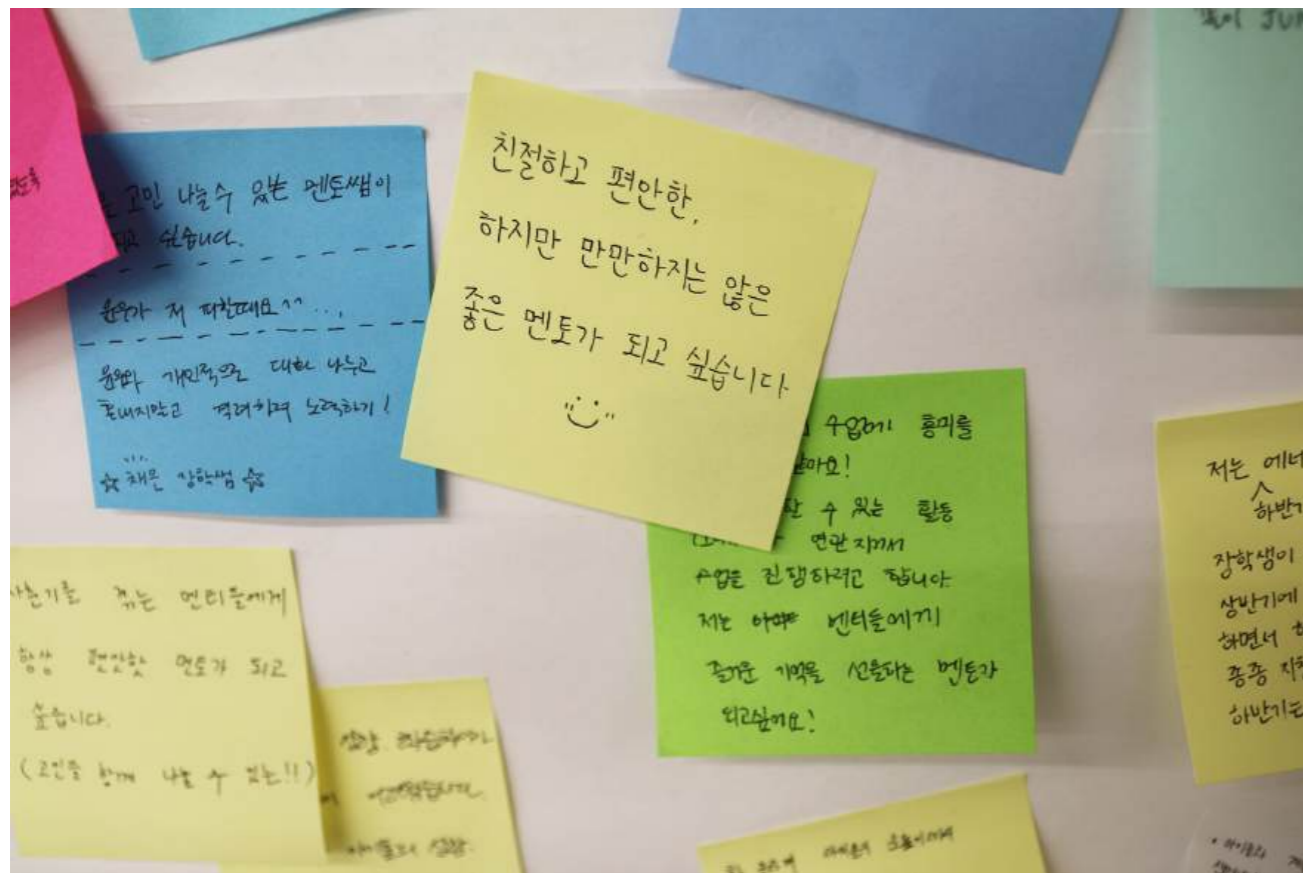
###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 관계

우리는 착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언어가 늘면 관계도 따라올 거라고. 하지만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백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데시(Edward L. Deci)와 리처드 라이언(Richard M. Ryan)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유능성(competence),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환경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관계성이 충족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발달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안전감과 연결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탐구하고 배우려는 본질적 동기를 드러낸다. 진명이가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체스를 즐기게 된 것은 한국어 배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을 소중하게 받아주는 어른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인천시 실태조사는 현재의 지원 체계가 “영역과 분야에 따라 분절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학습, 언어, 돌봄, 상담이 하나로 엮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 아이를 조각조각 나눠서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동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의 생태계다.



### 한 걸음 앞선 선배의 힘

청소년 정신건강을 연구해온 마이클 레스닉(Michael Resnick)은 12,000명의 청소년을 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한다. “양질의 인간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보호장치의 역할을 한다.” 양질의 사회적 관계가 위험행동을 막아주고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양질’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 에드워드 할로웰(Edward Hallowell)이 말한 ‘인간적 연결의 순간(Human Moment)’—타인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이 신뢰를 쌓고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가치점프의 삼각 멘토링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는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장학생이 있고, 그 대학생 뒤에는 사회적 멘토가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아이를 중심으로 촘촘히 엮이면서, 그 아이는 자신이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 구조가 특별한 이유는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선 선배(near peer)’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세 시간을 달려 센터로 향했던 선우쌤은, 자신도 낯선 환경 앞에서 망설였던 경험이 있기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자신의 과거와 닮아 있음을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돌아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연결의 첫 번째 의미다.



###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오다

자기결정이론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준다. 관계를 통해 외재적 동기가 내재화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외부의 보상이나 의무감으로 시작한 행동이,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의 일부가 되어간다.

장학생들이 처음 가치점프를 시작할 때는 장학금이나 경험 같은 외재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0개월 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다. 수줍게 웃던 얼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 눈빛,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주던 순간들.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자신도 한 걸음씩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무너지고, 멘티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교육이란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운다. 중학생의 고민을 듣고, 부모의 언어 장벽을 함께 넘으며, 자신의 과거 경험이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순간을 체감한다. 상처가 힘이 되고, 시행착오가 누군가의 지도가 된다.

이것이 연결의 두 번째 의미다. 연결 속에서 나도 자란다.

### 연결이 작동하려면

관계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듯, 연결도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치점프에서 활주로 역할을 맡으며 만들어온 조건은, 연결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 1) 체감이 있어야 한다. 센터 안에서만 반복되는 만남은 반경이 좁다. 청소년이 밖으로 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멘토와 하루 종일 뛰어놀며 소통하는 경험이 필요했다. 관계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청소년에게는 경험의 확장이 되고 임직원에게는 참여의 이유가 되는 장면들을 설계했다.
- 2) 지속이 있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 30개의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지만,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은 가치점프가 유일하다.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부서를 옮긴 후에도 멘토로 다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한다.
- 3)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임직원 멘토를 공사의 대표 얼굴로 보고, 선발에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 관계는 신뢰 위에서만 깊어지기 때문이다.
- 4) 협력이 있어야 한다. 공사의 자원과 점프의 현장 네트워크가 만나, 서로의 조건이 합쳐질 때만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 연결은 순환한다

진명이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마지막 말. “대학생 되면 멘토 하러 올 거예요.” 자신이 받은 연결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겠다는 것. 이것이 연결의 세 번째 의미다. 연결은 순환한다.

인천 지역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분절된 지원을 엮어내고, 학습 공백을 함께 메우고,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관계다. 무엇보다, 한 번이 아닌 계속되는 만남이다.

가치점프가 5년간 증명한 것은 명확하다.

- 1) 연결은 토대다. 관계성이 충족될 때 비로소 유능성과 자율성이 발현되고,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가치점프에 참여한 청소년 대다수가 학습 의지의 변화, 정서적 안정, 진로에 대한 관심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2) 연결은 동반 성장이다. 가르치러 갔다가 자라서 돌아온다. 장학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관점을 얻고 책임감이 깊어졌다고 말한다. 도우려던 손길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 3) 연결은 지속이어야 한다. 일회성으로는 “어차피 나는”을 “나도 할 수 있어”로 바꿀 수 없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얼굴이 있을 때, 비로소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한다.
- 4) 연결은 환경이 만든다.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활주로를 깔아야 한다.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손을 내밀고, 그 관계 속에서 나도 자라고, 언젠가 내가 다음 사람의 손을 잡는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함께라면, 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연결이 필요하다.



## Chapter 2. 신뢰가 쌓이는 시간

### Context

끊임없이 배우며 진화한 5년

### Story

기연쌤의 책임감 “해보려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다시 돌아온 성준쌤의 “1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진솔이와 선생님이 쌓은 “관계의 두께”  
손존화 선생님의 기대 “다음 해를 상상하게 만드는 협력”

### Value

약속을 지킨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각자의 색깔, 각자의 속도로 함께 자라는 과정

### Insight

관계 속에서 나를 믿게 된다



## Context

# 같은 해가 한 번도 없었던 이유 끊임없이 진화한 5년

### 틈을 그냥 두지 않는다

가치점프의 일정표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현장에서 남는 장면은 매년 달랐다.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해를 통과하며 드러난 간극과 가능성이 다음 해의 구성으로 옮겨가는 식이었다.

이 조정은 대체로 현장에서 시작된다. 센터에서 들려온 말, 장학생들이 남긴 활동 기록, 청소년이 보여준 반응, 임직원이 체감한 거리감 같은 것들이다. 점프의 매니저들은 매주 활동보고서를 “꼼꼼하게 보진 못하더라도 꼭 다 본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던데 잘 해결됐나요?”처럼 후속 질문을 붙인다. 장학생 중에는 그 과정에서 “계속 관심 받고 있고 칭찬 받고 있구나”를 느꼈다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관리라기보다, 한 주의 만남이 다음 주로 넘어갈 때 생기는 틈을 그냥 두지 않는 방식이다. 관계가 오래 이어질수록, 사실은 그 틈이 더 중요해진다.

### 관계는 설명보다 장면으로 만들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에서도 매년의 질문은 비슷했다. 담당자는 한동안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를 계속 묻는 시간을 거쳤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 회복기였던 2기에는 장학생이 학습센터로 가서 만나는 구조는 분명했지만, 청소년과 임직원 사이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3기, 4기로 넘어가면서 고민의 방향이 달라진다. 임직원이 삼각 멘토링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가치점프 올림픽이나 진로 박람회 같은 단체 멘토링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추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의 경로를 넓히기 위한 장치였다. 청소년에게는 센터 안의 반경을 잠시 넘어서는 경험이 되고, 임직원에게는 “여기서 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이때 점프가 붙잡았던 원칙도 분명했다. 청소년에게 사회인 멘토는 생각보다 많다. 점프는 “청소년한테 어른은 너무 멀어요”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어른을 더 많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계기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도록 했다. 사회인 멘토링도 한 번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듣는 방식으로, 또 한 번은 관심 분야별로 작은 질문까지 오갈 수 있는 방식으로 결이 달라졌다. 청소년 정보를 미리 공유해 준비하는 방식, 사전 질문을 받아 매칭하는 방식 같은 디테일은,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장치로 기능했다.

### 현장과 함께 맞춰가다

5년 동안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현장의 감각이다. 점프는 학습센터가 삼각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다. 동시에 센터가 장학생을 학원 강사처럼 활용하려는 방식이면 관계 중심의 운영은 쉽게 흔들린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센터를 선정할 때 다문화 비율 같은 조건만이 아니라, 관계 중심 운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살핀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합의의 과정이다. 같은 목표를 말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관계’로 볼 것인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이 변화가 드러난다. 센터는 첫 해 면접에서는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다가, 이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한다. 첫 해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 적극적인 장학생’을 고르던 기준이, 두 번째 해에는 ‘우리 센터의 누구와 잘 맞을 것 같아’, ‘우리 청소년 중에 누구는 이 선생님과 만나면 좋을 것 같아’로 바뀐다. 거기에 ‘우리 센터의 문화가 이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더해진다. 장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결을 세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구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임학지역아동센터의 손존화 선생님은 가치점프가 매년 “새로워지는 구나”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남겼다고 말한다.

2023년에는 프로젝트 발표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2024년부터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이듬해에는 장학금, 캠프, 펜타포트 같은 지원이 더해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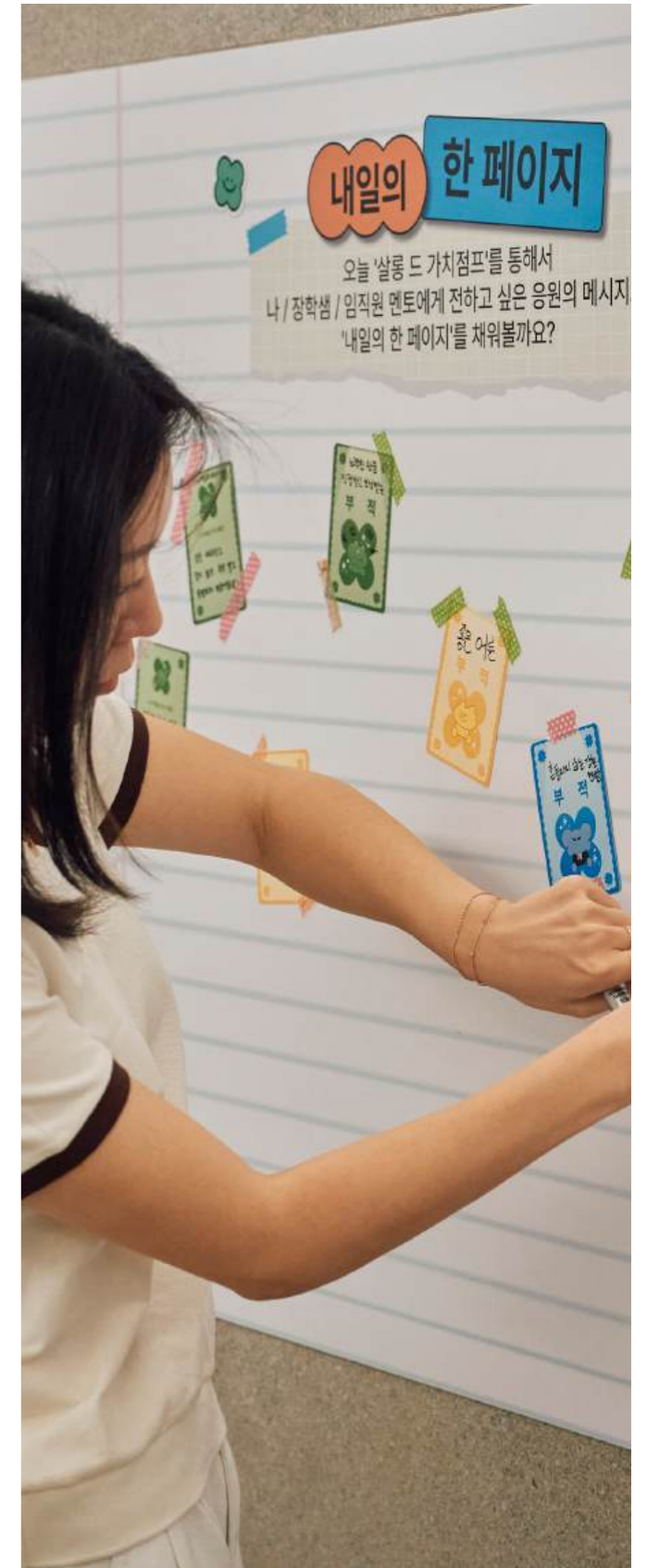
여기서 핵심은 ‘많아졌다’가 아니다. 같은 관계를 오래 이어가려면, 관계가 공부라는 한 장면에만 갇히지 않도록 숨 쉴 구간이 필요하다. 서로를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역할로만 남겨두지 않는 장면이 중간중간 배치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청소년은 관계를 ‘해야 하는 만남’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만남’으로 경험하고, 장학생은 가르치는 시간을 넘어 함께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배운다.

손존화 선생님은 변화의 속도를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그대로 반영”하는 데서 찾았다. 담당자와의 교류 시간이 “편안하게” 보완점과 바람을 꺼낼 수 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하면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생겨났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가벼운 이벤트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것이 반영된 흔적이 보이고, 다음 해에 바뀐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때—사람들은 ‘이번에도 해볼 만하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 그것이 신뢰다.

### 같은 해가 한 번도 없었던 이유

가치점프의 5년은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어떤 신뢰가 쌓여왔느냐로 읽히는 시간이다.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이 받는 형태에 머물지 않도록, 누군가가 멈추는 지점을 줄이고, 누군가가 더 멀리 나아갈 계기를 늘리고, 한 주가 다음 주로 이어지는 사이를 비워두지 않는 방식으로.

같은 해가 한 번도 똑같지 않았던 이유는, 매년의 변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실제로 남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가치점프가 말하는 신뢰의 토대가 되었다.



## Story

# 기연쌤의 책임감 “해보려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기연쌤은 ‘봉사’를 하고 싶었다. 이전 청소년센터에서의 경험이 알려준 것이 있었다. 봉사는 단지 좋은 일을 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도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가치점프의 10개월은 ‘잠깐 돕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관계를 만들고 함께 변화를 쌓아갈 수 있는 기간으로 느껴졌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과, 그 과정에서 자신도 자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선 첫 몇 달은 기대보다 조울과 고민이 먼저였다. 주 6시간 활동 중 2시간은 축구 활동을 도왔는데, 학습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활동시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기연쌤이 붙잡은 건

지원 당시의 첫 마음이었다. “나는 6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한 게 아니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그 문장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준이 됐다. 이미 약속한 일이었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기연쌤은 학습지도 6시간을 책임지고 채우면서도 축구 활동은 별도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 선택을 기연쌤은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불렀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아이들과 맺은 약속이 시간표보다 먼저라는 확신에 가까웠다.



### 해보려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그 책임감이 가장 선명해진 순간은 시험 기간이었다. 고등학생 멘티가 스스로 공부 의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연쌤은 정해진 일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멘티의 시험 일정에 자신의 하루를 맞추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센터를 반복적으로 찾았다.

‘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맡은 아이들 이니까’라는 마음에서였다. 더 많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해보려는 마음이 꺼지지 않게 옆을 지키는 일이었다.

### 질문을 관계 안으로 가져오는 법

그 과정이 늘 보람차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초등 축구 활동은 기연쌤을 여러 번 멈춰 세웠다. 울고, 화내고, 감정이 터지며 운동장에 주저앉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질문이 생겼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맞나. 기술의 부족보다 더 괴로운 건, 그 순간을 감당하는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기연쌤이 한 일은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관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활동보고서에 자신의 고민과 관찰을 있는 그대로 남겼고, 그 기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왔다. 운영사무국은 보고서를 확인한 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고민이 혼자만의 부담으로 남지 않는다는 감각은 기연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놓았다.

센터장과 직원들은 더 현실적인 언어로 길을 잡아주었다.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부드럽게 풀어가며 기다릴 지혜가 필요하 다는 조언이었다. 어떤 아이는 작은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고 수업 중 잔디에 누워버리기도 하지만, ‘기분이 풀릴 시간’을 주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 기연쌤은 그때 배우고 있던 것이 축구 운영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해내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준은 그때 더 분명해졌다.

### 삼각 멘토링이 알려준 것

그 연결은 센터 밖에서도 이어졌다. 사회적 멘토링을 통해 만난 공항의 임직원들은 기연쌤이 마주한 진로 고민 앞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준비 방식과 면접 이야기 같은 현실적 정보뿐 아니라, 고민을 진지하게 다루는 태도 자체를 지지해주는 대화들이 있었다. 청소년과의 관계로 시작한 활동이, 기연쌤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리로 확장되고 있었다.

발대식 대표 장학생, 중간 역량강화 교육 발표, 장학생 대표 인터뷰. 기연쌤은 여러 기회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 위해 더 깊이 관계를 돌아보고, 더 진지하게 멘티를 떠올리고, 더 성실하게 기록을 남겼다.

###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려 애쓴 사람

쉬는 시간, 다른 장학생이 장난으로 멘티에게 물었다.

“기연쌤 수학 못 가르치?” 멘티는 오히려 반대로 말했다.

“지금까지 센터에 교사도 오고 대학생 멘토도 많았는데, 제 눈높이에서 제일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준 선생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연쌤은 그 말이 진심인지까지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려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연쌤에게 가치점프는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형태의 곡선이였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쌓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나누며 조금씩 앞으로 가는 과정.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는 것,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책임감이 기연쌤의 토요일을 만들었다.



# Story

## 다시 돌아온 성준쌤 "1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 이런 문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

성준쌤은 4기 장학생 활동을 마친 뒤, 5기에 다시 돌아왔다. 더 놀라운 건 5기 활동을 대학 졸업 이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참여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겨두는 선택도 가능했을 텐데, 성준쌤은 관계가 만들어낸 변화를 기억으로만 두지 않고 다시 자신의 삶 안으로 가져왔다.

4기 때도 5기 때도 멘티는 늘 4명이었다. 센터 규모가 큰 편이었고, 아이들은 "고집이 세기도 하고 개성이 넘치는" 편이었다. 과목은 국어와 수학 위주였지만,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 놀고, 안에서는 게임이나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다. 공부만으로는 서로의 마음이 달힐 때가 있고, 놀이만으로는 대화가 알아질 때가 있다. 그 사이를 여러 번 오가며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장기 관계의 리듬이었다.

성준쌤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린 장면은 영화관이었다. 가치점프의 지원으로 영화관을 대관해, 큰 공간에서 빈백에 누워 영화를 보고 난 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 자리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원래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열심히 알려 주려고 하셔서 고맙다."

'나는 원래 못한다'는 문장을 먼저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아직 안전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그 한마디는 그날 처음 만난 선생님에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업과 여러 번의 대화가 겹치며 만들어낸 말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이런 문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 달려있던 시선과 사고를 열어준 시간

성준쌤이 돌아본 변화는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성준쌤은 가치점프를 통한 자신의 성장을 "시선의 변화"로 잡았다.

전역 후 복잡한 시기, 윗세대를 마주하며 매너리즘과 고정관념을 많이 경험했고, 자신도 어느 순간 "편향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런 상태로 가치점프에 들어오면 마음속에서 쉽게 말할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도 잘 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이 얼마나 얇은지 확인하게 된다.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시선이 흔들렸다. 띠동갑 차이가 나는 아이들 앞에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거리감이 "무슨 마음일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해하려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수료 즈음에는 "다양한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성준쌤이 가치점프를 "달려 있던 시선과 사고를 열어주는 시간"이라고 정의한 이유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더 오래 남는 지점은, 그다음에 있다. 수료 이후 다시 학교와 사회의 공기 속으로 돌아가면서, 가치점프를 통해 열렸던 시선이 어느새 닫혀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5기에 다시 돌아왔다.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자, 배워보자"는 마음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 성준쌤에게 1년은 완성의 단위가 아니라, 한 번 열어본 것을 다시 닫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점검하는 단위다.

### 그럼에도, 배울 것이 남아 있는 시간

한 기수를 더 하게 된 이유에는 시선의 변화 말고도 아쉬움이 있었다. 전역 후 처음 겪은 몇몇 대외활동은 보상이나 자율성이 적었고, 어떤 활동은 "실적 부풀리기" 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반면 가치점프는 수료 이후에도 배울 점이 남아 있었다. 4기 수료 때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지만 "잘해서 받았더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5기에서는 "부족했던 걸 채우자"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왔다.

5기에서는 4기와는 또 다른 결의 아이들을 만났다. 4기 아이들에게서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5기에서는 더 "솔직한 친구들"을 만나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배웠다. 그 감각은 센터를 넘어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세대 간 대화를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 관계가 관계로 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시간을 이어간 이유는, 성준쌤답게 현실적이었다.

"집에 가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도 배우고, 남은 체력을 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월요일이 재택인 지금은 시간을 당겨 4시간 정도 활동한다. 관계는 의지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정과 리듬 위에 올라가야 한다. 성준쌤은 그 리듬을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2년에 걸친 경험으로 몸에 붙여왔다.

성준쌤의 이야기는 장기 관계를 '좋은 사람들의 미담'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한 해 동안의 반복이 어떤 문장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사람의 시선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이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성준쌤이 자신의 편향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 수료 후 다시 한 기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 그것들은 한 번의 만남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준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관계가 관계로 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였다.

## Story

### 진솔이와 선생님이 쌓은 “관계의 두께”



#### 일상의 리듬을 바꾼 만남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돌봄의 자리다.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고, 보호를 받는 곳. 진솔이에게도 센터는 하루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장소였다. “학교 끝나면 운동하고, 센터 와서 저녁 밥 먹고... 가치점프 활동하면서 공부하고... 간식 먹고 집 가요.”

진솔이는 원래 가치점프에 관심이 없었다. 선생님이 참여할 것인지 물어봤을 때 “관심이 있지 않아 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친구가 먼저 참여한 뒤 “공부를 좀 많이 잘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아, 이걸 안 하면 안 되겠어.” 뒤늦게 들어온 선택이었지만, 이후 진솔이의 일상에는 일정한 만남의 리듬이 생겼다. 월요일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었다.

#### 물고 또 물을 수 있는 관계

처음 변화는 공부에서 보였다. “멘토링 덕분에 수학이랑 영어는 1학기에 점수 많이 올랐어요.” 진솔이는 원래 필기도 잘 하지 않고, 혼자 문제집만 풀었다. 하지만 장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솔이와 대화하며 차근차근 함께 공부의 근육을 키웠다.

이해가 느려도, 방식이 서툴러도, 질문을 꺼내도 괜찮았던 관계. 그 감각은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몇 번 더 쌓여야만 생긴다. 진솔이가 얻은 건 문제 풀이만이 아니라, ‘혼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느슨해지는 경험이었다.

관계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진솔이는 진학 고민을 꺼냈다. “예일고랑 계산고랑 어딜 가야 될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 물어봤고, “얘기 들으니까 좀 더 확실해졌어요”라고 했다. 불확실함을 누군가 앞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쩌다 만난 선생님’이 아니라 점점 한 사람으로 남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 잘 되길 바라는 사람

변화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장면은 해외탐방이었다. 진솔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뽑은 작년 장학생은 처음엔 “소심하고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라오스를 같이 다녀오며 인상이 달라졌다.

“말을 너무 잘하시고 웃긴 면이 많으시더라고요.” 멘토링 자리에서만 만났다면 보지 못했을 모습이다. 같은 목적으로 이동하고, 같은 시간을 길게 쓰고, 서로의 반응을 여러 번 마주치는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면이 있다.

진솔이에게 장학생은 이제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진솔이는 “장학생 선생님들이 카리스마가 좀 더 있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유가 재미있다. “저희 장학생은 좀 많이 착해서 가지고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셔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중학생다운 투정 같다.

그런데 진솔이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장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을 듣자 “너무 걱정돼 가지고”라고 한다. 도움을 받는 관계에서, 마음을 쓰는 관계로 바뀐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걱정은 농담처럼 튀어나온다.

#### 기억이 겹쳐지는 시간

임학지역아동센터의 손준화 선생님은 가치점프를 통해 센터도 “처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다”고 말한다. 동시에 “너무 힘들긴 힘들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장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해 아이들과 활동하는 방식이 “만족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관계가 공부라는 한 장면에만 갇히지 않고 계속 살아 있으려면, 함께 보낼 다른 장면이 필요하다. 진솔이가 장학생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민을 더 멀리까지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장면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쌓인 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두께였다. 그리고 그 두께가 진솔이에게 “혼자가 아니게 되는 감각”을 남겼다. 신뢰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긴 시간’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사람을 계속 만나며 기억이 겹쳐질 때, 비로소 생기는 변화다.

## Story

# 손존화 선생님의 기대 “다음 해를 상상하게 만드는 협력”

### 현장의 무게를 혼자 떠안는 방식

입학지역아동센터에서의 하루는 대단한 이벤트보다 반복되는 일상에 가깝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센터로 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쉬기도 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 외부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센터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늘 비슷하다. 아이들의 일상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 손존화 선생님에게 가치점프는 그 질문을 현실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만든 경험이었다.

새로운 활동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준비는 늘어나고, 동선은 복잡해지고, 아이들의 컨디션도 달라진다. “저도 복지사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단지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해진다’는 말이 현장에서 어떤 무게로 체감되는지 보여주는 고백이다. 그럼에도 가치점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남는 이유는, 그 무게를 센터 혼자 떠안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손존화 선생님이 강조한 건 협력의 방식이었다. 변화가 빠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현장의 상황을 목소리를 바로 듣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변화를 시키시니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이 문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먼저 올라오고, 그 목소리가 다음 해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바꾼다는 것. 손존화 선생님이 기억하는 간담회와 교류 시간은 그런 통로였다. “담당자와 교류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편안하게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방안을 자유롭게 꺼내게 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표준적인 문장보다, ‘말을 꺼내는 방식이 편안했다’는 체감이 더 중요하다. 말이 올라올 수 있어야, 현장은 다음 해를 상상할 수 있다.



### 매년 새로워진다는 감각

그 결과는 “매년 새로워진다”는 감각으로 돌아왔다. 2023년에는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하는 활동 형식” 한 가지였다. 2024년부터 “갑자기 더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었고, 2025년에는 이전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두면서도 “장학금이랑 캠프랑 또 펜타포트부터, 다양한 걸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중요한 건 양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해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한 번 잘 되면 그대로 복제되기 쉽다. 하지만 손존화 선생님이 체감한 가치점프는, 해마다 “어떻게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를 다시 묻는 쪽에 가까웠다.

활동이 다양해질수록 아이들은 서로를 더 새롭게 보게 되고, 장학생들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공부만의 자리로 좁히지 않게 된다. 장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해 아이들과 활동한 경험은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관계가 공부라는 한 장면에만 갇히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 시간을 ‘해야 하는 만남’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만남’으로 경험한다.

### 다음 해를 기다린다는 것

센터도 변했다. 손존화 선생님은 “힘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처음인 만큼 많이 배우기도 했”다고 했다. 올해는 센터 자체적으로도 기존보다 큰 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만족도가 높아 아이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함께 움직일 때 센터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존화 선생님이 남긴 가장 인상적인 말은 성과가 아니라 기대였다. “내년도에 대한 프로그램도... 애들이 더 새롭게 진행되고 대진 경기는 또 무슨 경기가 될까라는 기대도 많이 들 것 같아요.”

다음 해를 기다린다는 말은 단발성 이벤트에는 잘 붙지 않는다. 기다림이 생겼다는 건, 이 시간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 믿음은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험이 쌓였을 때 만들어진다. 입학지역아동센터의 일상 위에 얹힌 가치점프는 그렇게 ‘한 번의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음 해를 상상하게 만드는 협력으로 남았다.

# Value

## 약속을 지킨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 가치점프의 가치 ② — 책임감, 그리고 동행

가치점프의 두 번째 가치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과 '기다려주는 동행'이다.

#### 책임감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이 반복이 관계를 맺는 첫 단추다. 기연쌤이 시험 기간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센터를 찾은 것은 '내가 맡은 아이들이니까'라는 마음에서였다. 책임감이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뿜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 동행

신뢰는 서두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쌓인다. 이해가 느려도 괜찮다고 반복해서 보여줄 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을 때, 관계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함께 걷는 자리'로 바뀐다. 성준쌤의 멘티가 "원래 공부를 좀 못한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안전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동행이란, 앞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다.

#### 매주, 같은 자리에서

멘토링의 효과는 단순한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멘토와 멘티 사이에 쌓이는 신뢰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청소년 장기 멘토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한영주 외, 2015), 이 신뢰는 '다가서기-버터내기-함께 걷기'라는 세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처음에는 멘토가 멘티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내면적이고 외형적인 어려움을 함께 버터내는 시간을 지나, 점차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간다.

매주 같은 시간에 장학생을 만나러 센터로 향하는 아이들에게, "매주 만난다"는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다. 내가 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경험, 내가 오지 않으면 누군가 궁금해할 것이라는 확신. 이 경험과 확신이 쌓일 때 비로소 '다가서기'가 시작된다.

송하쌤은 가치점프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약속된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끝까지 움직이게 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약속을 반복해서 지킨다는 것. 관계의 첫 단추는 거기서 시작된다.

#### 기다림이 만드는 안전함

이주배경·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 쉽다. 첫 만남에서 마음을 담고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버터내기'다. 멘토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때, 이해가 느려도 괜찮다고 반복해서 보여줄 때, 멘티는 조금씩 질문을 꺼내기 시작한다.

송하쌤은 이 기다림이 만드는 변화를 직접 체험했다. "활동을 이어가면서 점차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향과 감정에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려주고, 학습 이전에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다문화 청소년의 멘토링 경험에 대한 연구(남혜경 외, 2016)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을 '심리적 안전 기지(Secure base)'라고 부른다. 멘토는 멘티가 부모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성준쌤의 멘티가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원래 공부를 좀 못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셔서 고맙다"는 솔직한 마음을 꺼낸 것도,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안전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가르침보다 기다림

라바툴쌤의 경험은 기다림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잠재력이 큰 멘티를 만나 심화 학습을 유도했지만, 멘티는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걸 왜 해야 돼요?"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제 일방적인 열정이 아이에게는 그저 버거운 짐이 된 것 같아요." 라바툴은 문제집을 덮고 아이와 마주 앉았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려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멘티 성향을 존중해 수업 중에 고민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러자 멘티는 지루해하던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 목표를 세웠다.

라바툴쌤은 말한다. "가치점프 활동은 저에게 가르침보다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었어요. 스스로 공부할 동기가 생길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멘토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수진쌤이 만난 멘티는 처음엔 말수가 적고 소심한 친구였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 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멘티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색함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수진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색연필을 선물했는데, 그다음 주 멘티는 그 색연필로 수진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었다. 수진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 야구를 주제로 한 그림도 건넸다.

수진쌤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멘티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편하고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관계는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심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 함께 걷게 되는 순간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함께 걷기'로 바뀐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리를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

진솔이가 장학생의 꿈을 듣고 "너무 걱정돼 가지고"라고 말한 것, 기연쌤이 멘티의 시험 일정에 자신의 하루를 맞추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센터를 찾은 것, 성준쌤이 수료 후 다시 돌아와 두 번째 해를 시작한 것. 이 장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며 함께 자라는 것.

연구에서는 이를 '유사 가족(Quasi-family) 관계'라고 부른다(남혜경 외, 2016). 해외탐방을 함께 다녀온 후 멘티가 "처음엔 소심한 느낌이었는데, 말도 잘하시고 웃긴 면이 많으시더라"고 장학생을 소개한 장면에서, 장학생은 이미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든 변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축적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했다. 단발성 프로그램은 만남을 만들지만 신뢰를 만들지는 못한다. 신뢰는 다가서기, 버터내기, 함께 걷기의 과정을 거쳐, 반복 속에서 쌓인다.

매주, 같은 얼굴이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내 속도를 존중해줄 때, 관계에는 두께가 생기기 시작한다. 매주 만난다는 약속, 기다려준다는 약속, 시간을 내어준다는 약속. 그 작지만 단단한 약속들이 한 아이의 일상을 바꾸고, 그 아이의 미래를 열고, 신뢰가 쌓이는 관계를 만든다.

# Value

## 저마다의 색깔로 함께 자라는 과정

### 가치점프의 가치 ③ — 자율성, 그리고 동반 성장

가치점프의 세 번째 가치는 '자율성이 만드는 완성도'와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동반 성장'이다.

#### 자율성

가치점프는 장학생들에게 멘토링의 방향과 큰 틀은 제시하되, 각자의 강점과 방식으로 멘티를 만나도록 허용한다. 이 자율성은 방임이 아니다. 매주 장학생들의 활동보고서를 빠짐없이 읽고 피드백하는 운영사무국, 갈등이 생기면 즉시 함께 고민하는 센터의 지지 체계 위에서 작동하는 자율성이다. 안전한 토대가 있을 때,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발휘한다.

#### 동반 성장

가르치려 간 사람이 배워서 돌아온다. 멘티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장학생도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인 멘토는 '좋은 어른'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된다. 성장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할 때, 관계는 비로소 순환한다.

이어지는 것이다.

#### 안전한 토대 위의 자율성

자율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토대가 필요하다. 조직심리학자 에이미 에드먼슨(Amy Edmondson)이 말한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솔직하게 말해도 비난받지 않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성준쌤은 "활동하다 보면 갈등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즉각 수용해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기연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매주 활동 보고서를 쓰는데, 매니저님들이 보시고 연락 주셔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주는 것 만으로도 많이 고마웠어요."

100여 명의 장학생들이 작성하는 주간 보고서를 빠짐없이 읽고 피드백하는 운영사무국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장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방치되지 않고 함께 고민해준다는 경험이 쌓일 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식을 시도하게 된다.

#### 저마다의 강점으로 만든 관계

자율성과 안전감이 갖춰진 환경에서, 장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멘티를 만났다.

다현쌤의 멘토링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멘티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졌다. "장학생이 청소년 멘티들에게 주는 것은 학습 지원보다 정서 지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 고민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부모님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을 저한테 막 털어놓고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기연쌤의 조언은 또 달랐다. "제가 맡은 친구가 진로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좋아해서 직업 군인을 추천했어요. 그 친구가 현재 육군사관학교 진학으로 진로를 정했다고 해요." 표준화된 진로상담 매뉴얼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조언이다. 한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신이 아는 세계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준 결과다.

다현쌤과 은지의 이야기는 이 자율성이 만들어낸 가장 특별한 장면이다. 은지는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말했다. 아쉬운 마음에 다현은 그 주 토요일에 은지를 만났다. "은지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했어요. 인생 네 컷 찍기, 카페 가기, 게임방 가기, 그리고 마라탕 먹으러 가기. 당시는 지원금이 없어서 제 돈으로 다 봤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 '이별 데이트'는 어떤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다. 은지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했기에 가능했던 하루다.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야 했다면,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다면, 다현쌤과 은지의 그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멘티를 위한 활동이, 장학생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다현쌤은 가치점프를 "삶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했다. "솔직히 사회생활 하면서 개개인의 색깔이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가치점프 활동을 하다 보니 회사 밖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 유일하게 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어요."

연서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활동 초반에는 멘티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달라졌어요. 멘티들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나조차 알지 못했던 장점을 멘티들이 먼저 알아봐 주었고, 그 과정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다

승재쌤의 이야기는 이 동반 성장의 고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저 역시 멘티였어요. 중학생 시절, 공부에 대한 뚜렷한 동기가 없었는데, 별 뜻 없이 참여한 멘토링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가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처음으로 꿈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멘토로서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멘토링은 제가 예상했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의 교류였어요. 초등학교 아이는 우는 이에게 공감하는 법에 있어서 나보다 나왔어요.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대학생 멘토 역시 중학생의 나에게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다현쌤의 말이 이 순환을 정리한다. "장학생들이 나아갔던 길을 청소년이 가도록 하는 거죠. 10년 지나면 '내가 저 장학생 오빠 언니들처럼 지내야지' 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주고,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정서적 버팀목 역할을 해요."

자율성을 존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곁에서 돕는다. 각자의 경험과 강점을 유연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 멘토링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저마다의 색깔로 함께 자라는 과정이 된다.

## Insight

# 관계 속에서 나를 믿게 된다

### 지식 전달보다 신뢰가 먼저다

장학생들은 처음 멘토링을 시작할 때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한다. 준성쌤은 “멘티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어요”라고 말했고, 민혁쌤은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멘토링을 ‘가르침’으로, 도움을 ‘지식 전달’로 이해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을 경험한 장학생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혁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교육은 지식 전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신뢰를 쌓고 마음을 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아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지만, 어떤 아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성쌤은 10개월 동안 멘티와 꾸준히 만나며 이렇게 정리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뢰와 공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하고, 잘되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경험은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호균쌤의 말이 이 전환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결과나 성과보다 관계와 신뢰가 먼저라는 점,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먼저 형성될 때, 멘티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나는 원래 못한다”는 문장을 꺼낼 수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 멘토 역시 스스로를 믿게 된다

가치점프에서 일어난 더 흥미로운 변화는, 멘티만이 아니라 멘토 역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서쌤은 활동 초기의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고, 제가 과연 장학생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이 불안은 많은 장학생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변화는 매주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일어났다. “매주 센터에 꾸준히 방문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면서, 점차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연서쌤이 스스로를 믿게 된 것은 완벽한 수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애썼던 과정 자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누군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타인의 긍정적 시선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시킨다. 타인이 나의 역량을 믿어줄 때, 나 또한 내가 품고 있는 가능성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 장학생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멘티를 믿고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멘티의 작은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 멘토 자신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된다.

### 관계 속에서 꿈이 생긴다

신뢰가 만드는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긴다.

서영쌤은 “가치점프와 함께한 10개월은 나의 꿈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교직과 일반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어요. 누군가의 성장 과정에 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일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서현쌤의 경험은 한 발 더 나아간다. 멘티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다. “지금은 하고 싶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도 직접 경험해 보면 의미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메시지는 멘티들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돌아왔다. “멘티들은 점점 스스로를 믿는 힘을 키워갔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 또한 앞으로의 방향과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크리스토프 앙드레도 말한다.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위협이나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일처럼 보였던 상황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낙관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 신뢰는 순환한다

가치점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멘티는 장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얻었고, 장학생은 멘티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멘토가 멘티를 변화시키고, 멘티가 멘토를 변화시킨다. 서로의 성장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단단하게 만든다. 신뢰는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멘티도, 멘토도 자신을 더 믿게 되고, 더 멀리 나아갈 용기를 얻는다. 이것이 가치점프 5년이 쌓아온, 신뢰가 만드는 시간의 의미다.

### Chapter 3. 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

#### Story

지기쌤이 돌아왔다 “받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다현쌤의 기준 “좋은 일이 아니라, 놓치고 싶은 않은 관계”  
윤진호 멘토의 시선 “다음 10년을 여는 단서”

#### Value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는 관계

#### Insight

가치점프 5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 Story

# 지기쌤이 돌아왔다 “받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 같은 자리, 다른 시선

지기쌤은 한때 멘티였다. 고등학생 시절, 한국 사회에 적용하던 지기쌤에게 경기글로벌센터는 매주 찾아가는 곳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센터에 오고, 정해진 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걸 묻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 있기도 하던 시간. 그때의 지기쌤에게 멘토링은 ‘도움을 받는 자리’에 가까웠다.

당시 받은 것은 단순히 학습 지원만이 아니었다.

낮선 환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언어 장벽 앞에서 말문이 막힐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았다. 정서적 도움이라고 부르기에 소박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기쌤은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런 지기쌤이 장학생이 되어 같은 공간에 다시 섰다. 같은 센터, 같은 책상, 비슷한 소음. 그런데 자리가 바뀌자 장면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질문이 ‘나를 향한 도움’으로 들렸다면, 이제는 그 질문이 ‘내가 감당해야 할 관계’로 다가왔다. 멘토가 된다는 건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이었다.

### 학생이 없으면 스승도 없다

처음 멘토가 되었을 때, 지기쌤은 자신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지’부터 걱정했다. 잘 설명해야 하고, 멋진 조언을 해야 하고, 좋은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마주한 건 더 단순한 요청들이었다. “이 문제에서 어디부터 해야 해요?” “이건 왜 틀려요?” “이거 하기 싫어요.” 멘토링의 핵심은 정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시도할 수 있게 옆에 서주는 것이었다. 예전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것도 사실 ‘정답’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는 태도였다.

지기쌤은 곧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학생이 없으면 스승도 없다”는 말처럼, 멘티가 매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해 준 것 자체가 지기쌤을 멘토로 만들었다는 것. 멘티가 오지 않았다면, 질문하지 않았다면, 때로는 “하기

싫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멘토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멘티였던 지기쌤은 ‘받는 사람’의 속도를 알고 있었다. 질문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답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침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먼저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그래서 멘토가 된 지기쌤은 말을 줄이고 관찰을 늘렸다. 아이가 어디에서 멈추는지, 무엇을 피하려 하는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집중이 살아나는지.

지기쌤이 발견한 첫 번째 전환은 ‘여기’였다. 멘티였던 경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멘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언어가 됐다. “나도 이 부분에서 막혔어.” “그때는 나도 하기 싫었어.” 이 말은 조언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신호. 아이가 혼자라는 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다리였다. 같은 이주배경을 가진 선배로서, 지기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었다. 위로가 아니라 증거였다. 지기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

### 수업 밖에서 만난 진짜 모습

그 관계는 수업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가치점프가 지원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기쌤은 멘티들이 진심으로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함께 식사하며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 교실 밖에서 만나는 멘티의 다른 모습들. 그 순간들은 수업 그 이상의 추억이 되었다.

두 번째 전환은 시선의 확장이었다. 멘토가 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다. 멘티일 때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심이었다면, 멘토가 되고 나서는 ‘이 시간이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보였다. 누군가가 시간을 조율하고, 만남이 끊기지 않게 연결하고,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기준을 세우는 일들. 그동안 배경처럼 지나쳤던 것들이, 없으면 관계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지기쌤이 멘토로서 있는 지금은 개인의 결심만으로 가능한 자리가

### 받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지기쌤은 마지막으로 아주 실감 나는 발견을 한다. 멘티에서 멘토로의 전환은 성공담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 “나도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상이 된다. 아이가 자기 미래를 설명할 때, ‘가능한 경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기쌤은 스스로를 롤모델처럼 포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사실이,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안다. “여기서 시작한 시간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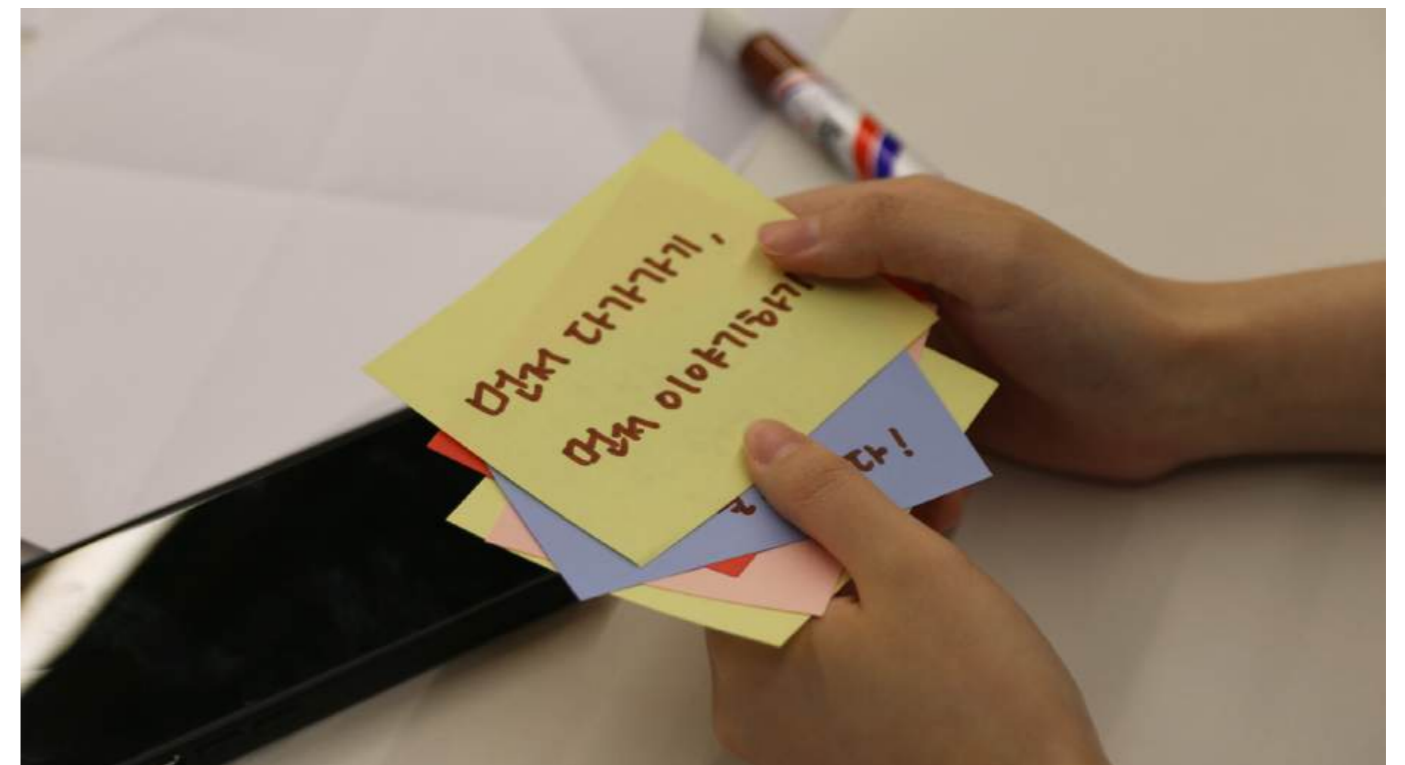
지기쌤은 “앞으로도 멘티가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늘 옆에서 응원하는 어른으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멘토링이 10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지기쌤 이야기의 핵심은 ‘전환’에 있다. “멘티에서 멘토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기쌤이 받았던 시간이 지기쌤을 만들었고, 이제 지기쌤이 만드는 시간이 다음 사람을 만들 것이다. 한때 센터에 오는 사람이었던 지기쌤은, 이제 센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받는 자리에서, 지키는 자리로. 그것이 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순환의 증거다.

아니었다. 누군가가 만들어 둔 시간과 구조 위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다음 사람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 전환은 도움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멘티였던 시절 지기쌤은 도움을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멘토가 된 이후에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다시 배웠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볼 마음’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지기쌤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성적이나 결과보다도, 아이가 책을 펼치는 순간의 표정과 질문의 톤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됐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지기쌤은 멘토의 자리에서 확인했다.

10개월 동안 멘티 옆에서 함께한 시간은 지기쌤에게 큰 선물이었다. “멘티와 함께한 이 한 해는 저에게도 잊지 못할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멘토가 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 Story

# 다현쌤의 기준 “좋은 일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 가치점프에서 확인한 나의 기준

다현쌤은 2기 장학생으로 가치점프에 들어왔다. 매주 시간을 내어 센터에 가고, 아이들을 만나고, 공부를 돕는 사람. 그 자리에서 다현쌤은 좋은 멘토가 되려고 애쓰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 관계에 기대고 있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교재 속 문제보다 더 생생했고, 대답을 고민하는 시간은 대학 강의에서 배우지 못하는 종류의 책임감을 남겼다.

장학생으로서의 1년은, 끝나면 ‘좋은 경험이었다’로 남겨둘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다현쌤은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다. 활동이 끝난 뒤 사회인 멘토로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명확했다. 이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다.

다현쌤은 가치점프를 “튼튼한 버팀목이자 삶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한다. “사회생활 하면서 개개인의 색깔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때 그게 나인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딱히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치점프 활동을 하면서 회사 밖에서도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구나, 회사 밖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에서 유일하게 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어요.”

사회인이 되면 관계는 더 쉽게 끊어진다. 일정은 촘촘 해지고, ‘좋은 일’은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런데도 다현쌤이 계속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험이 삶에 남긴 흔적을 보여준다. 그 흔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에 가깝다.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드는지, 어떤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다현은 그 기준을 가치점프에서 확인한 사람이다.

가치점프가 특별한 건 바로 이 지점이다. 누군가를 도운 시간으로 남기기보다,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만드는 경험으로 남는다. 다현쌤에게도 그랬다. 장학생이었던 다현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시작



했지만, 사회인 멘토가 된 다현쌤은 ‘연결을 이어가는 사람’의 감각을 갖게 됐다.

###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것

다현쌤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다. 장학생에서 사회인 멘토로 넘어가면 바뀐 것은 ‘역할’보다 ‘시간의 무게’다. 대학생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여지가 있었다면, 사회인이 된 후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인 멘토로 다시 선 다현쌤의 멘토링은 더 차분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보다, 그 시간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 멘토링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의 성장 곁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다현쌤의 선택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

다현쌤은 아이들과의 시간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 “장학생들이 나아갔던 길이 이제 청소년들이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10년 지나면 ‘나도 장학생 언니 오빠들처럼 이렇게 가봐야지’라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든가, 가정 안에서 받지 못하는 정서적 버팀목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백한다. “반대로 청소년들이 장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아이들이 주는 행복’인 것 같아요. 활동하다 보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아요. 애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힘들이가 무색하게 애들이랑 한 번 웃고 나면 또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 유년 시절의 거울

다현쌤은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발견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였지, 중학생 때는 이랬었지, 그래서 사춘기였지, 고등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지. 아이들을 보면서 제 유년 시절의 거울을 보는 듯했어요. 그러면서 역지사지가 되고, 그때의 나에게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애들한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다현쌤에게 남은 가장 선명한 장면도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제가 가르친 멘티 중 유일하게 1대1 데이트를 한 친구가 있어요. 은지라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그 주 토요일에 은지를 만났다. “은지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했어요. 인생 네 컷 찍기, 카페 가기, 게임방 가기, 그리고 마라탕 먹으러 가기. 당시는 지원금이 없어서 제 돈으로 다 썼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 구조적 선순환

다현쌤이 말하는 선순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아무래도 ‘활동 기간’ 같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해내는 장학생들의 노력, 중간중간 이탈자가 안 생기게 하려는 점프 운영사무국의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걸 받쳐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반.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변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길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체감하고, 관계가 신뢰로 깊어지고, 경험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장학생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었다. 운영사무국이 세심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공사가 그 기반을 받쳐준 결과다.

“기수가 쌓여질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니, 그 장학생들이 모여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같고요.” 한 기수의 경험이 다음 기수의 기준을 높이고, 그렇게 쌓인 경험이 프로그램 전체의 질을 끌어올린다.

다현쌤에게 가치점프가 남긴 연결은 공사와 점프라는 ‘조직’의 경계를 넘어, 한 개인의 삶에서도 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점프가 만든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다. 다현쌤의 이야기는 그 증거가 얼마나 현실적인 형태로 남는지를 보여준다.

대학생이던 다현쌤이 사회인이 된 뒤에도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다.

## Story

# 윤진호 멘토의 시선 “다음 10년을 여는 단서”

### 장학생이 중심인 프로그램

윤진호 멘토는 가치점프에서 “내가 무언가를 크게 바꿨다”고 말하는 쪽에 서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중심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짚는다. “장학생들이 다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은 역할을 축소하려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읽어낸 말에 가깝다. 청소년과 장학생이 매주 만나 관계를 쌓아가고, 그 시간을 책임지는 건 결국 장학생들이다. 사회인 멘토는 그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

가치점프에 참여하게 된 과정도 그런 감각과 닮아 있다. 입사 동기가 가치점프의 담당자였고, 본인도 ESG 부서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가까워서 지켜봤다. 다만 작년에는 인사팀에서 채용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대학생들과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팀을 옮기면서 그 부담이 줄었을 때, 비로소 사회인 멘토에 지원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떠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본 끝에, 자신의 상황이 정리된 뒤에야 멘토링에 참여하기로 했다. 좋은 의도만으로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와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윤진호 멘토가 대학생들에게 남긴 첫 번째 힌트였다.

막상 참여해 보니, 예상과 다른 장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윤진호 멘토가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의외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장학생들의 자기소개였다.

대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보통은 학교를 먼저 말하는데, 가치점프 장학생들은 학교보다 “어느 센터에서 활동하는지”를 먼저 말하더라는 것이다. 소속을 소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그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삶의 한 조각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언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보다 ‘이번 주에도 가야하는 자리’가 먼저 떠오르는 소개. 윤진호 멘토는 그 장면에서 장학생들이 이 활동을 얼마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대학생이라는 자리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종류의 몰입, 누군가의 한 해를 함께 책임지는 감각이 그 안에 있었다.

### 사회인 멘토의 자리

윤진호 멘토가 사회인 멘토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설명할 때도, 중심은 늘 장학생에게 돌아간다. 그는 사회인 멘토링이 장학생에게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힘들 만하면 멘토링이 있고, 지겨울 만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는 리듬. 그 리듬이 장학생들의 10개월을 끊기지 않게 만든다고 봤다.

여기서 ‘리프레시’는 기분 전환 같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숨 고르기’다. 청소년과의 관계는 매주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무더짐이 된다.

윤진호 멘토는 그 반복을 ‘무조건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장치들이 중요하다고 봤다. 사회인 멘토는 그 장치의 한 부분으로 참여한다. 앞에서 끝기보다, 옆에서 밀어주는 선배처럼, 장학생들이 중간중간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질문에 답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윤진호 멘토는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리프레시는 사회인 멘토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고. “개인적으로도 만날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면 일상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직장인의 삶이 다 좀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을 깨고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신과 같은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변 직원들에게 많이 권하는 편이라고 했다. “장학생들이 열 달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다음 사람의 가능성

윤진호 멘토가 경험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멘토링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상상했다.

“지금 대학생 장학생 분들도 언젠가 직장인이거나 사회인이 될 거 같아요. 사회인이 되시면 저처럼 꼭 가치점프는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언젠가 직장인이 될 것이고, 그때 또 다른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면, 기회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더 넓게 봤을 때 다양한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청소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좋은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윤진호 멘토가 본 가치점프의 진짜 가치였다.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구조. 장학생들이 언젠가 직장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지금의 사회인 멘토가 후배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다음 참여를 연결할 수도 있다. 윤진호 멘토는 나중에 공사 후배가 멘토가 될 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 말은 거창한 비전 선언이라기보다, 좋은 경험이 조직 안에서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깝다. 좋은 경험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가능한 선택지’로 남는 것. 윤진호 멘토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다.

### 다음 10년을 여는 단서

그래서인지 윤진호 멘토는 가치점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힘주어 이야기한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공헌 사업이 뭔가 일회성이 되기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활동 기간이 길기도 하고 실제로 활동도 주에 두 번씩 6시간 해가지고 10개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대학생 시절 애정을 갖고 참여했던 봉사단이 기업의 장학금 사업이 없어지며 사라졌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척 아쉬워했다. 당시에는 그 기업을 원망했지만, 직장인이 되고 나니 ‘의미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지속된다’는 현실이 보였다고 한다.

그가 가치점프의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H기업의 해피무브라든지 S기업의 드림클래스라든지,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고 참여해보고 싶어 하는 대외활동들이 있어요. 저는 가치점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연차가 됐을 때 후배가 이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나도 했었다. 한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윤진호 멘토의 이야기는 ‘큰 변화’가 아니라 ‘다음 걸음’으로 남는다. 청소년에게는 직접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장학생에게는 현실의 언어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선배가 될 수 있고, 조직 안에서는 다음 참여를 상상하게 만드는 연결점이 될 수 있다. 그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기준을 남긴다. 관계는 의지만 시작되지 않고, 태도와 거리감, 반복을 지탱하는 리듬을 통해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지속이 쌓일 때, 이 프로그램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춘다. 청소년은 장학생을 보며 10년 후를 상상하고,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한다. 윤진호 멘토가 가치점프에서 남긴 건 성과가 아니라, 다음 10년을 여는 단서다.



## Value

###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는 관계

#### 가치점프의 가치 ④ — 한 걸음 앞선 어른, 그리고 선순환

가치점프의 네 번째 가치는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는 선순환’이다.

##### 한 걸음 앞선 어른 (Adults One Step Ahead)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지기쌤은 멘티였던 자신의 경험이 멘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되었다고 말한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라는 신호는 조언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선 사람만이 건낼 수 있는 증거다. 청소년은 장학생을 보며 10년 후를 상상하고,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한다.

##### 선순환

받았던 자리가 의미가 되고, 끝내지 않는 선택이 관계를 이어가고, 경험이 전승되어 다음 참여를 연다. 멘티가 장학생이 되고, 장학생이 사회인 멘토로 돌아오고, 사회인 멘토가 후배에게 다음 참여를 여는 구조. 한 사람의 성장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이 다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 받았던 자리가 의미가 되는 순간

지기쌤은 고등학생 시절 경기글로벌센터에서 멘토링을 받았다. 낯선 환경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언어 장벽 앞에서 말문이 막힐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았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기쌤은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런 지기쌤이 장학생이 되어 같은 공간에 다시 섰을 때, 장면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질문이 ‘나를 향한 도움’으로 들렸다면, 이제는 그 질문이 ‘내가 감당해야 할 관계’로 다가왔다. 멘토가 된다는 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일이었다.

멘티였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멘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되었다. 질문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대답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침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먼저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지기쌤은 ‘받는 사람’의 속도를 알고 있었기에, 말을 즐기고 관찰을 늘렸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건낼 수 있는 언어가 되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라는 신호였다.

같은 이주배경을 가진 선배로서, 지기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였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단단해진다는 것. 위로가 아니라 증거였다. 지기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다.

승재쌤도 같은 발견을 한다. “저 역시 멘티였어요. 중학생 시절 별 뜻 없이 참여한 멘토링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가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당시의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시간이 흘러 승재쌤이 멘토가 되었을 때, “멘토링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쌍방향의 교류였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대학생 멘토 역시 중학생의 나에게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기도 했다.

이것은 일종의 ‘한 걸음 앞선 어른 효과(Adult One Step Ahead Impact)’다. 완벽한 어른의 조언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의 존재가 변화를 만든다. 받았던 시간은 잠복해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지기쌤이 받았던 시간이 지기쌤을 만들었고, 이제 지기쌤이 만드는 시간이 다음 사람을 만든다.



##### 끝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관계

다현쌤은 2기 장학생으로 가치점프를 시작했다.

장학생으로서의 1년은, 끝나면 ‘좋은 경험이었다’로 남겨둘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다현쌤은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다. 활동이 끝난 뒤 사회인 멘토로 다시 돌아왔다.

다현쌤에게 가치점프는 ‘좋은 일’이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였다. 대학생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여지가 있었다면, 사회인이 된 후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인 멘토로 다시 선 다현쌤의 시간은 더 차분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었다. 멘토링을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의 성장 곁에 오래 남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다현쌤만이 아니다. 4기 장학생으로 활동했던 성준쌤도 5기에 다시 돌아왔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주 센터에서 멘토링을 이어가는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준쌤 역시 한 번 경험한 관계를 끝내지 않기로 선택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관계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구조의 일부가 된다. 다현쌤이 장학생에서 사회인 멘토로 돌아온 것이, 다음 장학생들에게

‘나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끝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쌓일 때, 프로그램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의 생태계가 된다.

##### 경험이 전승되는 조직

윤진호 멘토는 가치점프를 “장학생들이 다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사회인 멘토는 그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역할을 축소하려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정확히 읽어낸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멘토링의 각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이렇게 삼각 멘토링인데, 제가 청소년이었던 순간도 있고 장학생이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때는 장학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회인 멘토가 되어 다시 이 구조 안에 선 것이다. 그 전환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멘토들 중에는 대학생 시절 교육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많다. 가치점프 3, 4기 담당자였던 조민재 멘토도 그중 한 명이다.

대학생 때 교육봉사를 오래 했던 조민재 멘토는, 장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멘토링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가 취업 준비에 올인하는 시기에 봉사활동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이 이미 경험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민재 멘토는 장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입사에 치중한 멘토링보다, 삶의 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더 하려고 했다. 한 걸음 앞서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

윤진호 멘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한다. 장학생들도 언젠가 직장인이 될 것이고, 그때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더 다양한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청소년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한 사람의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가능한 선택지’로 남을 때, 그것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조직의 문화가 된다. 윤진호 멘토가 후배에게 “나도 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후배는 멘토링을 낯선 활동이 아니라 ‘선배들도 했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경험이 전승되고, 전승이 참여를 낳고, 참여가 다시 경험을 만든다.



###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춘다

지기쌤은 청소년 멘티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든든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위로가 아니라 증거다. 지기쌤 자신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지기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를 배운다.

다현쌤은 “아이들을 보면서 제 유년 시절의 거울을 보는 듯 했어요.”라고 말한다.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인 다현을 보며 “나도 나중에 다현 언니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를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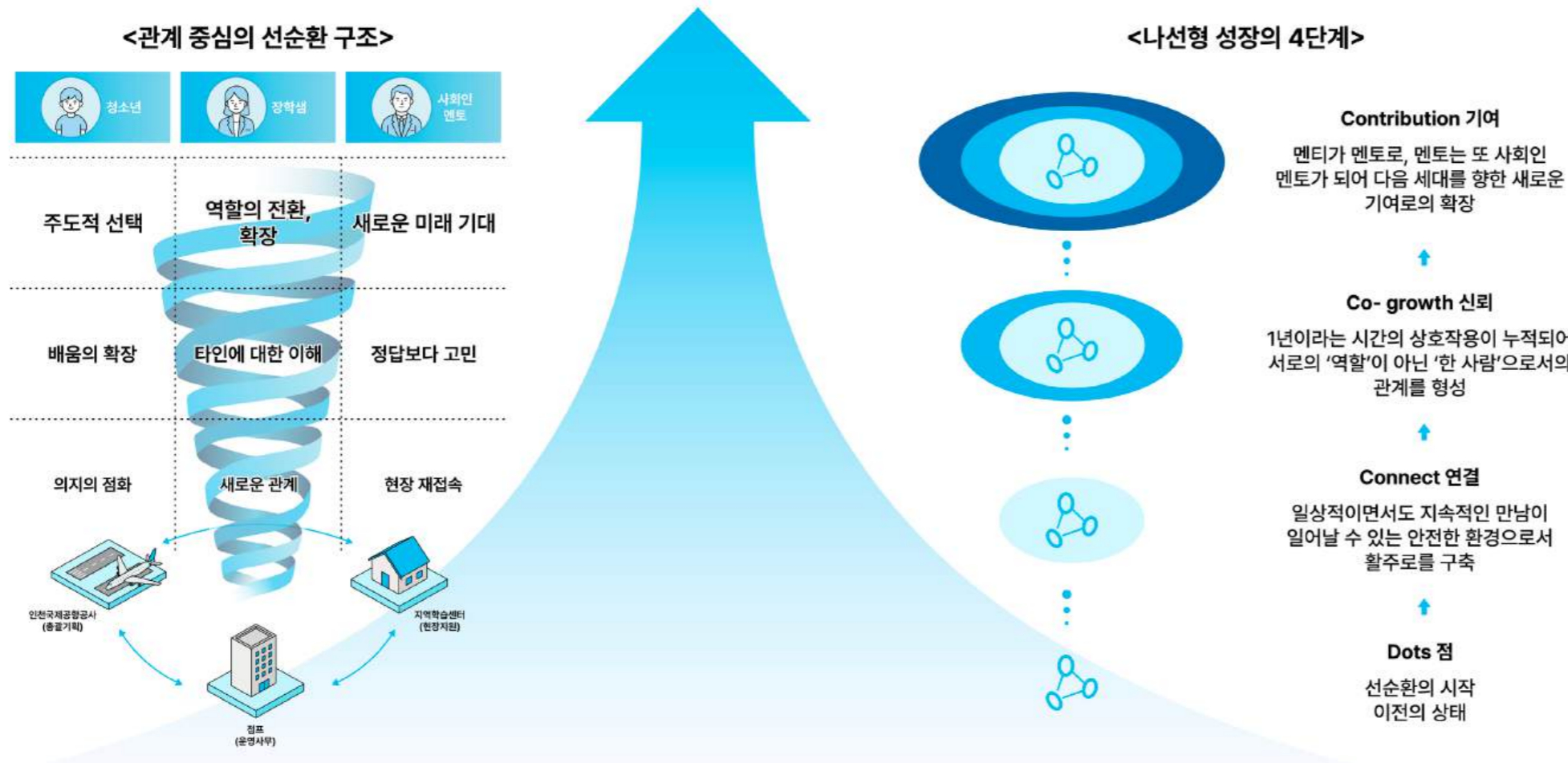
윤진호 멘토는 “나도 했었다. 한 20년 전에”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배가, 또 다음 세대에게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청소년은 장학생을 보며 10년 후를 상상한다.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고, 사회인 멘토는 후배에게 다음 참여를 여는 사람이 된다. 각자는 한 걸음 앞선 사람을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되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을 연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지기쌤이 멘티에서 장학생이 되고, 다현쌤이 장학생에서 사회인 멘토가 되고, 윤진호 멘토가 20년 후를 상상하는 구체적인 경로다. 다현쌤이 말한 “구조적 선순환”이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의 성장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이 다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 Insight

## 가치점프 5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 선순환의 원리: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춘다

가치점프 5년의 핵심 성과는 ‘관계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연결의 활주로를 놓고, 사단법인 점프가 운영사무국으로서 세심하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인천 지역의 학습센터가 현장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삼각 협력 구조. 그 안에서 청소년 멘토, 대학생 장학생, 사회인 멘토 세 주체가 나선형 성장(Spiral Growth)을 이뤄냈다.

이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한 걸음 앞선 사람의 영향력(Adults One Step Ahead Impact)’이다.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된다. 청소년은 대학생 장학생을 보며 “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고,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며, 사회인 멘토는 후배에게 경험을 나누며 다음 참여의 문을 연다. 각자 한 걸음 앞선 사람을 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되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을 연다.

5년간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센터에서 멘토링을 받았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한 뒤 장학생으로 지원한 사례, 장학생을 마친 뒤 사회인 멘토로 돌아온 사례, 4기를 수료하고 취업한 뒤에도 다시 5기 장학생으로 돌아온 사례. 나선형 성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로다. 받았던 자리가 의미가 되고, 끝내지 않는 선택이 관계를 이어가고, 경험이 전승되어 다음 참여를 여는 구조. 한 사람의 성장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이 다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멘토, 인천공항공사, 사단법인 점프, 지역학습센터. 각자가 필요와 자원을 가진 점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 2단계: Connect — 연결의 조건

두 번째 단계는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단순히 만나는 것만으로 연결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가치점프는 세 가지 연결의 조건을 만들었다.

#### 1) 시간: 책임감을 만드는 10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길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체감하고, 관계가 신뢰로 깊어지고, 경험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약속의 반복이 ‘이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만들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멘토링 연구에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멘티의 행동적 심리적 적응 효과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된다. (이금진, 2015).

#### 2) 관계: 서로의 색깔과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

가치점프는 멘토링의 방향과 큰 틀은 제시하되, 각 장학생이 자신만의 강점과 방식으로 멘티를 만나도록 허용한다. 어떤 장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고, 어떤 장학생은 진로 탐색을 돕고, 어떤 장학생은 정서적 지지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이 다양성이 바로 가치점프의 강점이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닌, 한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추는 개별적 접근.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다.

#### 3) 운영: 피드백, 자율성, 반영

100명의 장학생이 작성하는 주간 보고서를 빠짐없이 읽고 섬세하게 피드백하는 운영사무국의 보이지 않는 수고, 어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방치되지 않고 함께 고민해준다는 경험이 쌓일 때, 심리적 안전감이 만들어진다. 힘들 만하면 멘토링이 있고, 지겨울 만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는 리듬. 학습 지원 외에 함께하는 체험활동도 같은 맥락이다. 교실 밖에서 만나는 서로의 다른 모습이, 관계의 깊이를 더한다.

시간이 책임감을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세심한 운영이 그 관계를 끊기지 않게 지탱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릴 때, 점들이 선으로 이어진다.

### 나선형 성장의 4단계

가치점프의 선순환은 4단계로 작동한다.

#### 1단계: Dots — 점들의 존재

선순환은 각각의 ‘점’에서 시작된다.

인천 지역의 다양한 배경 청소년과 가정은 언어 장벽과 학습 공백을 넘어 미래를 꿈꾸고 싶다. 장학생은 학업과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사회인 멘토는 반복되는 회사 생활 속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싶고, 사단법인 점프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지역학습센터는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싶다.

**3단계: Co-Growth — 동반 성장**

세 번째 단계는 연결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를 변화시키는 관계가 되는 순간이다.

청소년 멘토링 연구에서 멘토가 경험하는 효과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은 책임감 향상,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가, 정서적 친밀감이다(김경준 외, 2012). 가치점프 장학생들도 정확히 같은 경험을 보고한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장점을 멘티들이 먼저 알아봐 주었다”는 발견, “멘토링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의 교류”라는 깨달음. 가르치려 간 사람이 배워서 돌아오는 이 경험은 개인적 감상이 아니라, 장기 멘토링의 구조적 효과다.

한 사람의 성장이 다른 사람의 성장을 촉발한다. 멘티가 자신을 믿는 모습을 보며 장학생도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장학생이 고민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인 멘토도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확인한다. 이것이 동반 성장이다.

**4단계: Contribute — 기여와 선순환**

네 번째 단계는 성장의 경험이 다시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순간이다.

받았던 자리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다음 사람에게 가능성이 된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관계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구조의 일부가 된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가능한 선택지’로 남을 때, 그것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조직의 문화가 된다.

“장학생 면접에 들어갔는데, 센터 출신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지원한 케이스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의미 있구나 싶었죠.” 이 한마디가 기여 단계의 가장 분명한 증거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진다. 이 선순환이 쌓일 때,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가치점프의 3 Impacts**

가치점프 5년이 만들어낸 임팩트는 세 가지 층위에서 드러난다.

**Social Impact — 사회적 가치 창출**

**: 인천 지역 이주배경의 청소년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

인천은 전국에서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2025년 말 기준, 다문화 학생 수는 1만 5천명이 넘었고, 전체 학교의 95.9%에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진로 미결정률은 92.9%에 달한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가치점프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지난 5년간 청소년 참여자들의 도전 의지, 자기 효능감, 학습 태도, 학업 성취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치점프가 만들어낸 진짜 변화는 수치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나도 나중에 멘토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라고 말하는 청소년이 생겨난다는 것. 1년 전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의 문을 두드렸던 청소년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전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상상한다는 것. 진로 미결정률 92.9%라는 숫자 안에 있던 아이가, 자기 미래의 한 가지 경로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치점프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의 본질이다.

**: 인천 지역 청소년-대학생-사회인의 동반 성장**

가치점프의 임팩트는 청소년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장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장되었다고 답했고, 사회인이 되면 멘토로 돌아오고 싶다는 응답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 “달려 있던 시선과 사고를 열어주는 시간”이라는 한 장학생의 표현은, 가치점프가 청소년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대학생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감수성을, 사회인 멘토에게는 삶의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대학생 멘토의 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김경준 외, 2012)에서도 확인되듯, 멘토링에 성실하게 참여한 멘토일수록 책임감, 타인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의지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인다. 가치점프의 10개월은 장학생들에게 학업과는 다른 종류의 성장 —누군가의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성장—을 선사한다.

**: 인천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확장**

인천 지역 소재 대학생이 인천의 청소년 멘티와 연결되고, 인천의 공기업 임직원이 사회인 멘토로 참여하고, 인천의 지역학습센터가 현장을 지원하는 구조. 가치점프는 인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공기업, 비영리, 지역사회, 시민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축적되는 자원”이라고 정의했듯, 가치점프 5년은 인천 지역에 이던 관계망을 만들어냈다. 이 관계망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마다 사람이 순환하고 경험이 쌓이는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Collective Impact — 협력 플랫폼 구축**

**:공사(공기업)-점프(비영리)-학습센터(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포용적 성장 플랫폼**

가치점프의 선순환은 개인의 선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안정적인 재원과 사회인 멘토를 제공하고, 사단법인 점프 운영사무국은 100명의 장학생과 평균 25개의 학습센터와 섬세하게 소통하며 촘촘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지역학습센터는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현장을 지원한다.

많은 사회공헌 사업이 기업-비영리 간 단순 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기업이 예산을 내고, 비영리가 집행하고, 현장은 수혜자로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치점프는 이 구조를 넘어섰다. 세 주체가 각자 고유의 강점을 가지고 대등하게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그 목소리가 다음 해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Collective Impact — 독립적인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협력하는 모델 — 의 실제 작동 사례다.

**Internal Impact — ESG 인식의 내재화**

**: 초심의 회복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

가치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에서 만들어낸 변화는, 외부로 향한 사회공헌이 내부를 향한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 가치점프가 만든 관계의 힘

가치점프 5년의 임팩트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숫자 뒤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에 왔던 진명이는 “나도 나중에 멘토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라고 말하게 되었다. 선우쌤은 한 해가 지났을 때 “멘티들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기연쌤은 정해진 멘토링 시간 외에도 멘티의 시험 기간에 매일 센터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 멘티였던 지기쌤이 장학생으로, 장학생이었던 다현쌤이 사회인 멘토가 되어 돌아왔다. 이로써 5년의 선순환이 한 바퀴를 완성했다.

인천공항공사(활주로)-점프(운영사무국)-지역학습센터(현장 지원)의 삼각 협력 구조 안에서, 청소년-대학생 장학생-사회인 멘토가 나선형 성장을 이룬다. Dots에서 Connect로, Connect에서 Co-Growth로, Co-Growth에서 Contribute로. 이 선순환이 쌓일 때,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성장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이 다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것이 가치점프가 5년 동안 지켜온 관계의 가치이고, 5년 동안 만들어온 나선형 성장의 힘이다. 그리고 이 관계 중심의 선순환 구조는, 일방향 기부나 단발성 봉사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현장에 서고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공기업 ESG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임직원 멘토들은 대학생 장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한다. 입사 준비 과정을 설명하다가 자신이 잊고 있던 초심을 떠올리고, 장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그래, 나도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지”라는 감각을 되찾는다. 멘토링 자리에서는 사무실의 직급 체계가 사라진다. 사원, 대리, 과장이 모두 같은 ‘멘토’로 만나고, 서로의 이름 뒤에 ‘쌤’을 붙인다. 그 수평적 공간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동료의 면모를 발견하고, 조직 내 친밀도가 높아진다.

딜로이트의 2023년 Purpose and Impact Survey에 따르면, 효과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직원의 86%가 더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고 응답했다. 가치점프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내부 효과다. 사회공헌이 담당 부서의 사업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임직원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조직 전체로 퍼져나간다.

**: 단순 기부형 CSR에서 참여형 사회혁신 모델로**

많은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어디에 좋은 일을 했다더라” 정도로 인식할 뿐, 직접 의미를 느끼거나 참여한다고 체감하기 어렵다. 가치점프는 이 구조를 전환했다. 임직원이 직접 대학생 장학생과 만나 대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장학생의 성장을 곁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공헌이 ‘조직 전체의 경험’이 된다.

“공사의 대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예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사업의 미래에 대해 공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들이 장학생이 되고, 장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인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가치점프는 사회공헌이 일방향의 기부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성장으로 돌아오는 모델—참여형 사회혁신—을 만들어냈다.



## Epilogue

### 에필로그: 우리는 서로의 미래가 된다

#### 관계의 가치

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계가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5년의 시간이 답을 주었습니다.

관계는 사람을 키웁니다. 다만, 아무 관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관계, 이해가 느려도 괜찮다고 기다려주는 관계, 가르치는 자리를 넘어 함께 걷는 관계, 받았던 자리가 의미가 되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관계. 가치점프 5년이 만들어온 것은 바로 이런 관계의 순환이었습니다.

이 순환에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결의 활주로를 놓고, 사단법인 점프가 사람과 사람을 세심하게 이어주고, 지역학습센터가 현장의 베이스캠프가 되었습니다. 그 삼각 협력 관계 안에서 청소년, 장학생, 사회인 멘토라는 세 개의 점이 만났습니다. 세 주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놓은 삼각 협력의 토대. 그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의 가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은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경험, 내가 오지 않으면 누군가 궁금해할 것이라는 확신.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에 왔던 진명이가 자기 미래의 한 가지 경로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도, 장학생의 꿈을 듣고 “너무 걱정돼 가지고”라고 말한 진솔이의 마음도, 혼자가 아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해가 느려도 괜찮다고 기다려줄 때,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을 때, 관계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함께 걷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책임감을 만들었고, 각자의 색깔과 속도를 존중하는 노력은 관계를 깊게 만들었고, 세심한 운영은 그 관계를 끊기지 않게 지탱했습니다.

신뢰 위에서 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멘티였던 청소년이 장학생으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장학생이었던 대학생이 사회인 멘토가 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인 멘토는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았고, 동료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장이 다음 사람의 가능성이 되고, 그 가능성이 다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나선형 성장. 5년간 이 나선은 한 바퀴, 두 바퀴 돌며 점점 넓어졌습니다.

#### 순환이 계속되려면

이 나선이 계속 돌아가려면, 나선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해본 직원이라면 계속 하고 싶어한다.” 사회인 멘토의 저변이 넓어질 때, 더 작은 그룹에서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청소년이 자신의 관심과 결이 맞는 어른을 만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한 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음 5년의 과제입니다.

5기까지 쌓인 시간은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사람들이 이미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치점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알람이 네트워크는, 순환이 프로그램 안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밖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택한 방법 —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변화를 전하는 것 — 은 다음 5년에도 유효한 원칙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장학생과 청소년의 이야기”가 “이번 주 전체 교육 시간”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관계가 만든 변화를 계속 기록하고,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이 순환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 우리는 서로의 미래가 된다

프롤로그에서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소년은 장학생을 보며 자신의 10년 후를 상상하고, 장학생은 사회인 멘토를 보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고, 사회인 멘토는 다음 세대에게 경험을 건네며 또 한 번의 성장을 시작합니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관계는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성장의 활주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가 자라는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이 나선은 계속 돌 것입니다.



## Appendix 숫자로 본 가치점프, 5년의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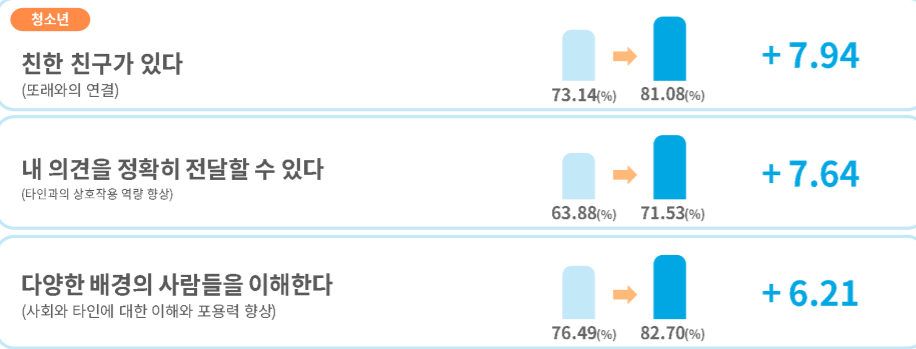
### 가치점프 5년의 Impact Page: 관계가 만든 성장의 기록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지난 5년간 청소년, 장학생들과 함께 만든 긍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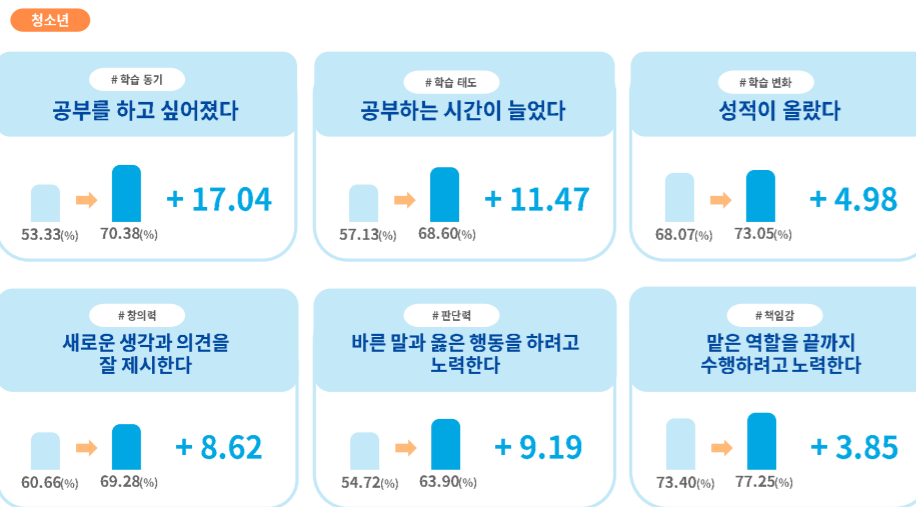
#### INSIGHT 1

###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이 필요하다.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더욱 넓게 이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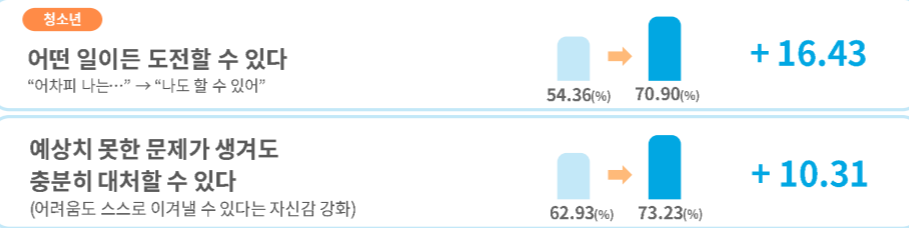
| '연결'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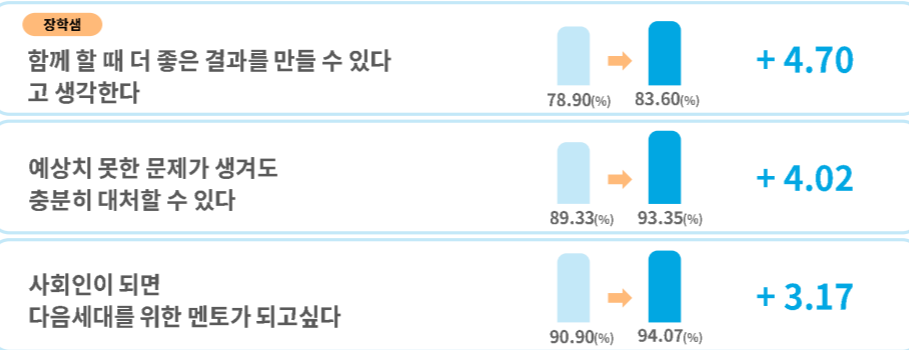
#### INSIGHT 2

### [관계] 속에서 나를 믿게 된다

| 타인의 믿음이 '자기 신뢰'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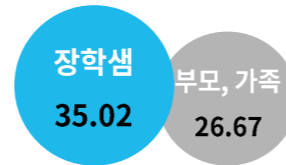


| '함께'의 의미를 깨닫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 | 청소년에게 미치는 장학생의 영향력

|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



| 학습에 도움을 주는 사람



#### INSIGHT 3

### 가치점프 5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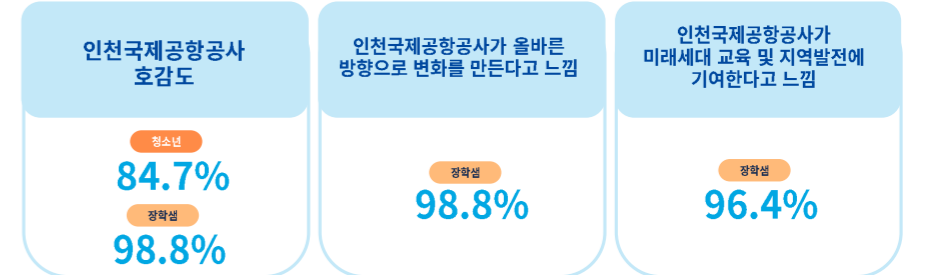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참여 경험이 만든 신뢰와 관계의 질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인식

| 자부심과 만족감이 기관에 대한 신뢰로 확장



| 5년간 만든 사회적 가치 환산



조각난 자원을 엮어내는 연결과 관계가 형성되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를 향해 움직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기다려주는 관계 속에서 청소년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학생은 스스로를 믿게 되며, 동반 성장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 다음 사람의 손을 잡는 선순환이 지속되면서, 인천 지역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확장됩니다.

## 참고문헌

경기일보. (2025.11.02). “다문화 특수교육’급한데…대책 못 찾은 인천교육”.

경인방송. (2026.02). “다문화 최전선 인천…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도마 위”.

곽현아. (2025.12.09.). “이주배경인구 5% 시대…서울·경기·인천에 150만명”. 『뉴스1』.

국가데이터처. (2024).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김경준 외. (2012). 청소년 또래멘토링의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김민수. (2024).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의 삶과 성원의 권리.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김천기. (2019). 『교육사회학』 (제4판). 학지사.

남혜경 외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토링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5(1).

이금진. (2015). 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메타분석 고찰. 『생명연구』, 37, 173-214.

이병철 외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2023 인천 다문화교육 포럼』.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 제안 연구』.

최정호. (2022).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크리스토프 앙드레 외. (2021). 『나를 살리는 관계』. 위즈덤하우스.

한영주 외 (2015). 빈곤가정 청소년과의 장기 멘토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학연구』, 16(5), 229-251.

Deloitte. (2023). Purpose and Impact Survey.

Hallowell, E. M. (1999). The human moment at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77(1), 58-64, 66.

KEDI (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Resnik M, et al.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18(10), p.823~832.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발행일** 2026년 4월

**주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 및 운영** 사단법인 점프  
**콘텐츠 제작** (주)진저티프로젝트  
**디자인** (주)아이비엘

**가치점프 운영기간** 2020년 ~ 현재  
**가치점프와 함께해 주신 분들**  
 인천·경기권 지역아동센터 120개소  
 대학생 교육봉사자(장학생) 494명  
 이주배경 청소년 1,937명 (2021년~2025년 기준)

**인천공항 가치점프**  
[www.value-jump.org](http://www.value-jump.org)

**저작권** © 202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단법인 점프  
 본 책자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